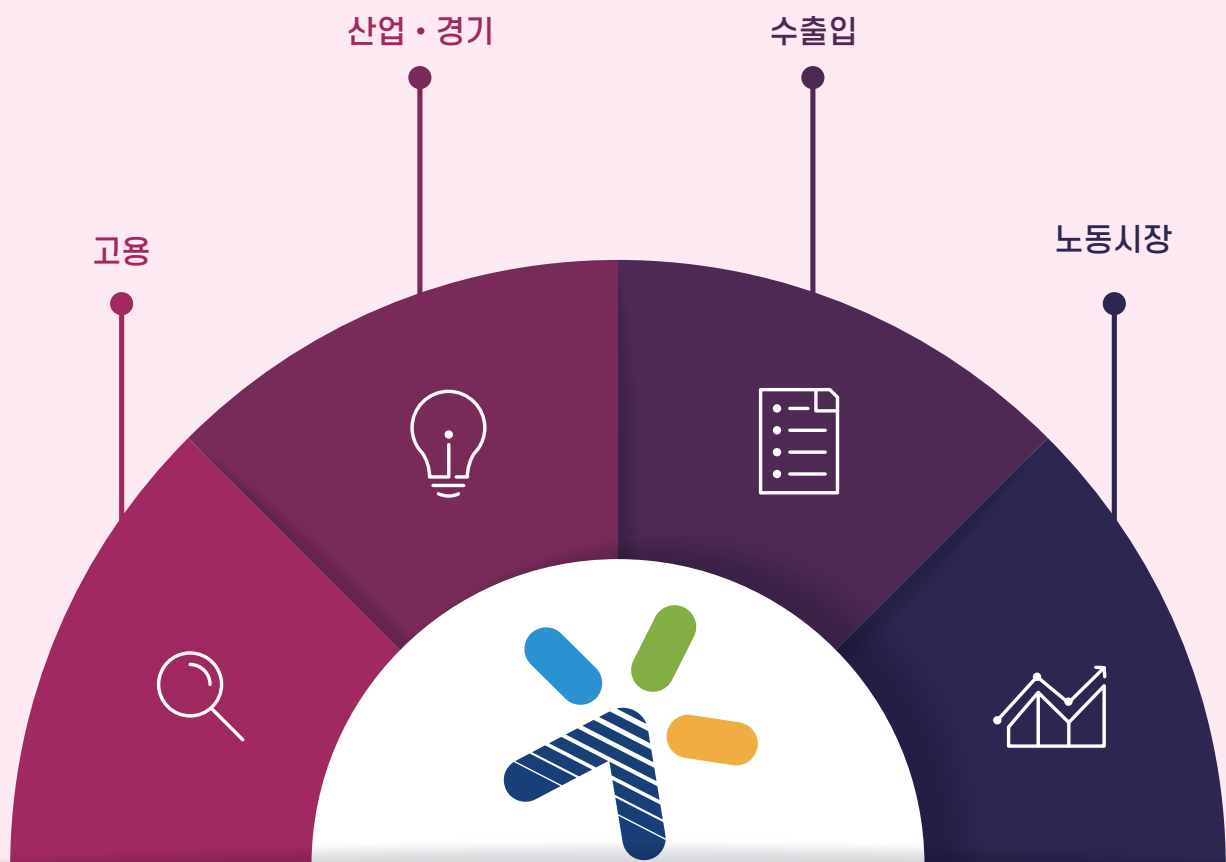


2023. 11월호

vol.11

Sejong HRD Review

세종지역의 최근 HRD 이슈와 지역동향을 한눈에



Sejong HRD Review

세종지역의 최근 HRD 이슈와 지역동향을 한눈에

vol.11

2023. 11월호

CONTENTS

Intro

신중년 고용의 새로운 방향 모색	02
(세종특별자치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ISSUE Brief 1.

세종시 신중년 현황과 정책 과제	04
(세종신중년센터 윤유경 선임연구원)	

ISSUE Brief 2.

신중년 직업능력개발과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0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연구위원)	

조사·통계 Brief 1.

세종지역 신중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및 활성화 노력	14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박인 선임연구관)	

지역동향_2023년 3분기

지역동향 한눈에 보기	22
세종지역 산업·경기 동향	24
세종지역 수출입 동향	28
세종지역 노동시장 동향	30
세종지역 인구이동	37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39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우승현 전임연구관·김제나 연구관)	

「Sejong HRD Review」는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연4회 발행하는 자료로서 고용, HRD,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이슈들에 대한 리뷰를 통해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개인 구독자들이 세종지역의 각종 동향 지표 현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지역의 주요 산업·경기·노동지표들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부록_2023년 3분기]

[부록1]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¹⁾	42
[부록2]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등락률	43
[부록3]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성질별 등락률	44
[부록4] 세종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45
[부록5] 세종지역 금융기관 ¹⁾²⁾ 수신	46
[부록6] 세종지역 금융기관 ¹⁾²⁾ 여신	47
[부록7] 세종지역 수출입 증감률	48
[부록8] 세종지역 최근 3년 월별 수출입 동향	49
[부록9] 전국 지자체별 수출	50
[부록10] 전국 지자체별 수입	51
[부록11] 세종지역 고용동향	52
[부록12] 세종지역 산업별 사업장 성립 및 소멸 현황	54
[부록13] 세종지역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현황	56
[부록14] 세종지역 산업별 피보험자 현황	58
[부록15] 세종지역 구인구직 현황	60
[부록16] 세종지역 인구이동 현황	61
[부록17] 세종지역 성별 및 연령별 인구이동	61
[부록18] 세종지역 시도 간 전출입 현황	62
[부록19] 세종지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63
[부록20] 세종지역 직종별 실업자훈련 실시현황	64
[부록21] 세종지역 성별·연령별 실업자훈련 실시현황	65
[부록22] 세종지역 사업주 및 근로자훈련 실시현황	65

INTRO

신중년 고용의 새로운 방향 모색



이승원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24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에 직면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는 노동, 자본, 생산성 등인데, 저출산과 고령화, 총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 노동생산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자본투자나 생산성 혁신의 한계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외국인 고용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초고령사회 대비와 함께 신중년을 노동시장 내 핵심인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여 국가 생산요소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7년 8월 「신중년¹⁾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와 '22년 6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신중년의 직무 전환, 이·전직을 위한 재취업·직업훈련 강화, 고용상 연령차별을 유발하는 제도·사회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 있다.

세종시 신중년 인구는 '22년 기준 87천명이고, 비중은 22.8%로 나타났다. 전국 신중년 인구 비중이 30.6%로 세종지역은 전국보다 7.8%p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신중년의 가장 큰 특징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고학력의 신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 기술, 경험 등을 보다 잘 활용한다면 지역 기업들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신중년들에 대한 지원사업 위주의 전형적인 일자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 신중년은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로써 만 50세부터 만 69세 이하를 말함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공공 및 생계형 일자리 창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연계된 민간 주도 일자리와 접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과 밀접한 역량 강화 지원(직업교육훈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가 신중년의 기술과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년과 지역 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 지역 경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은 필수적이다.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지역 정책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선도하길 기대한다.



ISSUE Brief 1

세종시 신중년 현황과 정책 과제

윤유경 | 세종신중년센터 선임연구원



2023년 9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인구 수 5,100만 명 중 신중년 세대(50~64세)는 1,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1%에 해당하고 있다. 이 중 세종시는 인구 38만 명 중 신중년 세대가 19.3%에 해당하는 7만 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신중년 세대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 전국 신중년 인구 현황(2023.9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체	50 – 54세	55 – 59세	60 – 64세	신중년 인구	신중년 비중
전국	51,370,001	4,510,413	4,127,881	4,265,416	12,903,710	25.1
서울	9,407,540	795,906	693,973	716,791	2,206,670	23.5
부산	3,300,836	276,592	262,747	300,538	839,877	25.4
대구	2,377,801	215,019	203,401	206,846	625,266	26.3
인천	2,987,918	264,471	247,509	253,840	765,820	25.6
광주	1,422,999	127,368	111,985	105,536	344,889	24.2
대전	1,444,595	128,760	112,444	113,624	354,828	24.6
울산	1,104,167	102,449	101,320	97,974	301,743	27.3
세종	385,932	30,956	22,515	21,191	74,662	19.3
경기	13,626,339	1,232,896	1,083,184	1,052,469	3,368,549	24.7
강원	1,530,712	131,298	129,918	150,014	411,230	26.9
충북	1,594,326	136,659	133,386	142,942	412,987	25.9
충남	2,127,630	179,478	166,481	180,953	526,912	24.8
전북	1,758,661	153,377	145,742	156,751	455,870	25.9
전남	1,807,295	152,979	156,741	169,108	478,828	26.5
경북	2,559,924	219,932	222,863	247,527	690,322	27.0
경남	3,257,009	299,539	278,311	296,593	874,443	26.8
제주	676,317	62,734	55,361	52,719	170,814	25.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우리나라 신중년 관련 정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초기 신중년 지원 정책은 '불안하다', '갈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불안하다'는 은퇴로 인한 나머지 생애에 대한 불안함과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와 관련된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갈 곳이 없다'는 은퇴해서 이제는 회사가 아닌 가정생활로 인한 무료함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할 곳이 없다'는 사회에서 가정으로의 복귀로 가정경제의 출혈로 일할 곳을 찾지만 막상 일할 곳을 찾지 못함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 와중에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신중년의 욕구도 달라지고 신중년 관련 정책도 달라졌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젊은 층과의 소통,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및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 이에 필자는 이와 관련해서 신중년 고용 정책으로 신중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신중년의 경제활동을 알아보자면 신중년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신중년 세대는 베이비부머, 혹은 에코 베이비부머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도의 산업발전 성장기에 태어났으며, 오늘날 경제의 주요 주체이자 생산가능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대이다. 특히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상당한 가계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신중년 세대는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였지만 또 다른 사회를 찾아 나서고 있는게 현실이며, 그들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의 하향 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빈번하다. 불완전한 노동시장, 플랫폼 노동과 같은 비정형 노동으로 이행함에 따라 고령자의 일자리의 질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 중장년층(40세~59세) 고용동향(2019~2022)

(단위: 천명)

		2019	2020	2021	2022
취업자	전체	27,123	26,904	27,273	28,089
	중장년	12,948	12,702	12,733	12,932
	중장년 비중	47.7	47.2	46.7	46.0
실업자	전체	1,063	1,108	1,037	833
	중장년	322	355	322	242
	중장년 비중	30.3	32.0	31.1	29.1
비경제활동 인구	전체	16,318	16,773	16,770	16,339
	중장년	3,573	3,729	3,659	3,492
	중장년 비중	21.9	22.2	21.8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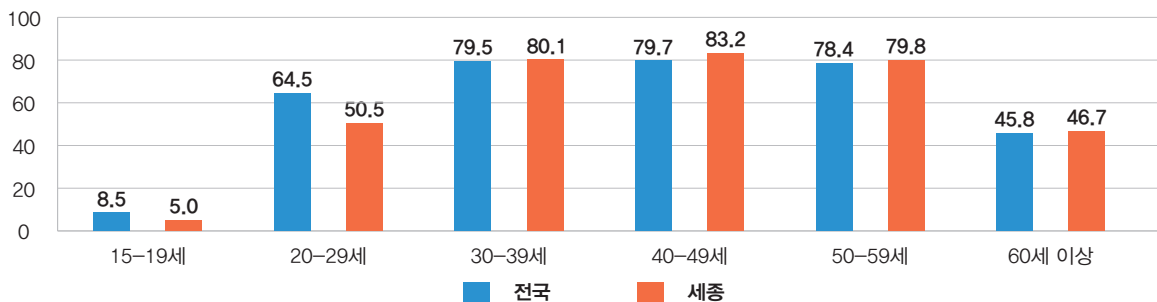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위 표에 의하면 중장년(40~59세) 취업자 수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20년 12,702천 명 → '21년 12,733천 명 → '22년 12,932천 명), 중장년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20년 47.2% → '21년 46.7% → '22년 46.0%). 이는 노동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취업자 비중이 매년 하락하면서 중장년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신중년은 타 연령대보다 경제활동 참여 성향이 강하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대로, 신중년의 고용 감소는 경제에 생산성 저하라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신중년 세대는 얼마나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세 이후 연령부터는 전국보다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의 출범과 더불어 무수히 많은 정부기관과 국책 연구기관 등이 이전하면서 관련 근무자(공무원, 연구원 등)의 이주로 전국비율보다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전국 vs. 세종, 2022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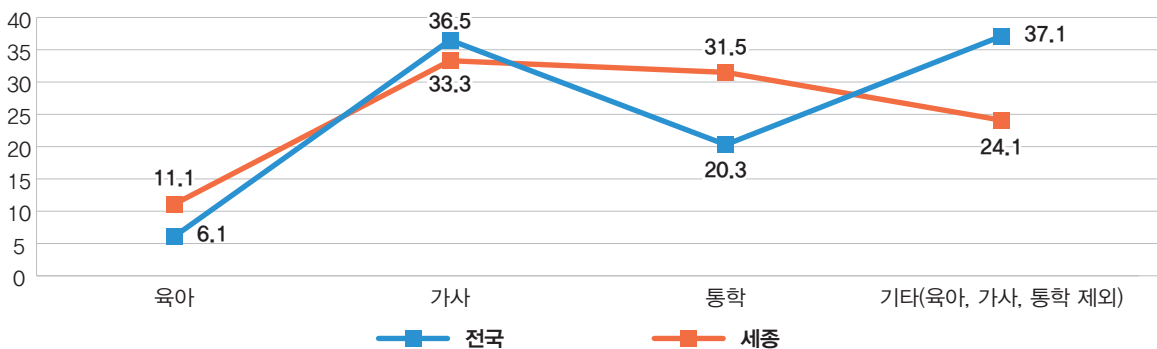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세종시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세종시의 젊은 도시의 특징답게 육아와 통학으로의 비경제활동이 전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반면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로는 전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비교(전국 vs. 세종, 2022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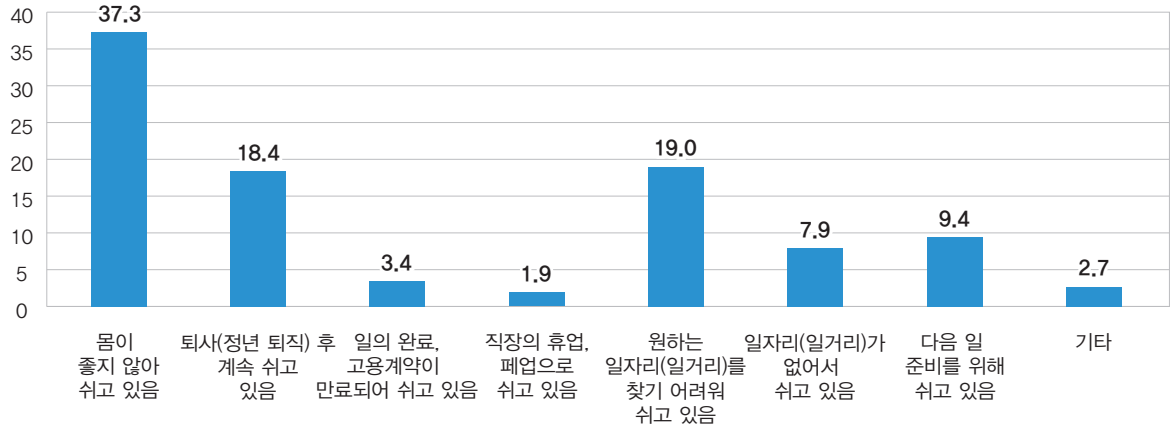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러면 기타 부분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쉬었음의 주된 이유)(2023. 9월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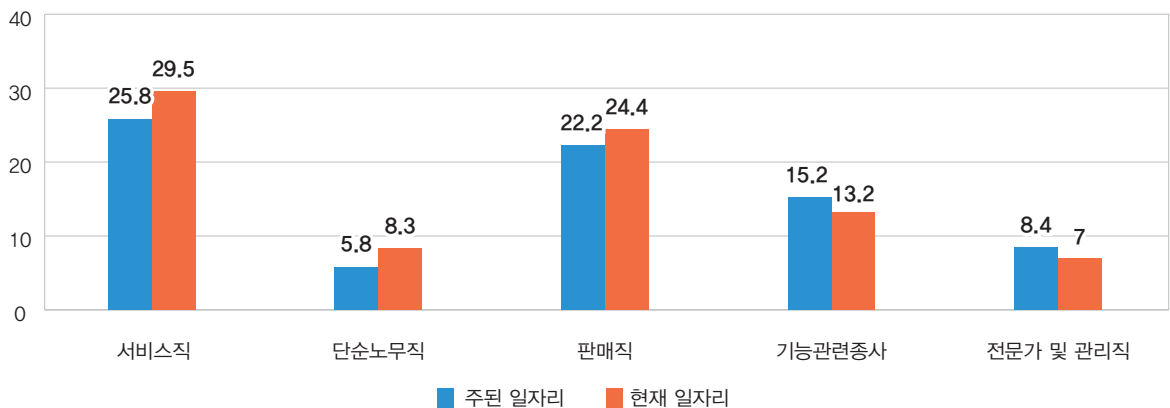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여기서 우리는 퇴직, 고용계약 만료, 휴업, 일거리가 없음, 구직 중을 살펴보면 신중년세대가 가장 오래 근무한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현재 일자리로 안착을 할 시에 주된 일자리 업무와 업무의 지속성을 가지고 제2의 일자리를 갖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신중년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현재는 신중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직종별로 보자면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서비스·판매직, 단순 노무직 등 단순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신중년 직종별 일자리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된 일자리에서 하던 일의 지속성이 결여되면, 개인의 인적 자본 축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신중년의 현재 일자리가 그러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세종시 신중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첫째,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신중년의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현재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에 맞는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유지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필자도 새로운 일자리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수준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현재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재정 투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해 일자리 유지 정책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신중년 지원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연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분절성과 중복성을 없애기 위하여 신중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프라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세종시는 늘어나는 신중년세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재투자하기 위하여 신중년센터를 개소하였다. 신중년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은 신중년의 제2의 인생을 다시금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정책으로 세종시의 신중년에게는 갈 곳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중년센터는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서 국한된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개척과 참여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전통적인 신중년 관련 프로그램이 아닌 신중년이 직접 개발하고, 참여하여 노동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셋째, 세종시 신중년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비중이 높고 전직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세종시 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 비중은 약 47.63%로 해당 전국의 30.1%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세종시에서는 신중년이 퇴직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이 점차적으로 필요하고 이들이 원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은 그동안의 주된 일에서 은퇴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발전하고 자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이 낮은 측면이 있지만 자신의 삶 발전과 일을 할 수 있다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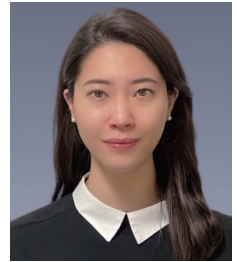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은 세종시-훈련기관-신중년 3박자가 맞아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공공기관에서 신중년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해 줌으로 신중년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을 사회적 자본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친화적 고용과 재취업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훈련기관에서는 신중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우치는 인식전환 교육, 현재 일자리에서 필요한 업무능력배양 교육, 직업훈련개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종시, 훈련기관, 신중년이 함께 노력하면서 노동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일자리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ISSUE Brief 2

신중년 직업능력개발과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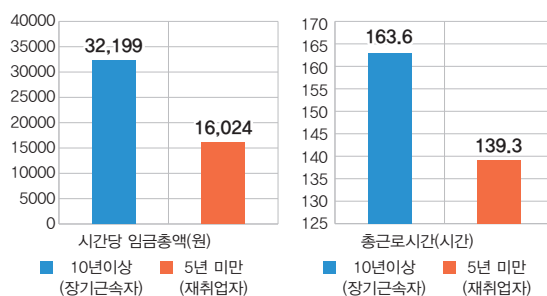
1.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신중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1.27.)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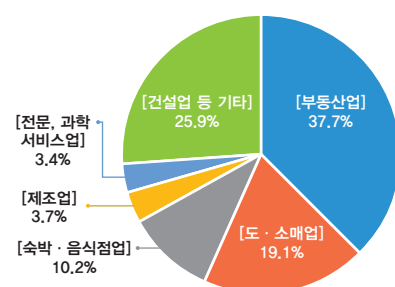
특히 과거에 비해 교육 및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일자리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높아졌고,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등에도 적극적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65세 이상'의 고용률²⁾은 연금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55~64세' 고용률³⁾은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할 시 오히려 낮은 편이다.

또한 생애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시, 숙련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49.3세)이 정년 연령에 비해 낮고 장래근로희망 연령(2015년 71.6세 → 2021년 73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취업자 훈련 참여율(24.0%)이나 생애 일자리 지속자 훈련 참여율(31.4%)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 후 기술·경험 활용이 어려운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근속기간 5년 미만)이 장기근속자의 49.8%에 불과하다. 고용의 질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낮고, 일용직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관계부처 합동, 2021.9.30.)⁴⁾

▶ 재취업자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 중장년 신생창업 현황



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9)

자료: 창업기업동향(2020)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1.27.),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

2) 65세 이상 고용률(2021년): 한국 34.9%, OECD 평균 15.0%(OECD 1위).

3) 55~64세 고용률(2021년): 일본 76.9%, 독일 71.8%, 한국 66.3%, OECD 평균 61.4%.

4) 관계부처 합동(2021.9.30.), [제3기 인구정책TF]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인력을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한나 외(2019)⁵⁾가 실시한 전직 대상자들의 요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직지원 서비스가 퇴직과 상관없이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원할 때 제공되기를 바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전직 대상자들은 실업 상태에서 고용으로 연계되기보다는 고용 상태에서 고용으로 연계되는 것을 원하며, 스스로 직업 탐색에 대한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고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직장에서의 근무하는 동안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 마련이 시급하나, 아직은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이 노동시장 내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직, 전직, 사회공헌 등 전 영역에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1.27.)⁶⁾. 이를 위해 원활한 직무 전환, 이·전직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직업훈련 강화, 고용상 연령차별을 유발하는 제도·사회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직업훈련정책의 틀과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신중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디지털·신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짧은 기술 교체 주기, 이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력수급의 적시성과 숙련·융합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5대 유망신산업 인력수요의 경우 2020년 24만 명에서 2030년 3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SW 분야 인력수급 차는 5년간 약 2.9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6.9.)⁷⁾.

반면 국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자동화와 온라인 대체가 용이한 직종 중심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란 전망 역시 제시되고 있다. 맥킨지(2017)⁸⁾는 2030년 세계 근로자의 14(3.7억 명)~30%(8억 명)가 실직·전직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술변화로 2025년까지 단순 노무·서비스직 노동수요가 21만 명 감소할 것이란 예측도 발표되었다(KDI 보도자료, 2021.11.10.)⁹⁾. 이에 따라 디지털·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부문 간 노동이동 및 숙련도 차이에 의한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 가능성¹⁰⁾도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수요의 재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위축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평생 고용가능성과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관찰되는 고령화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감소와 디지털 전환은 중장년의 직장생활 연장 및 인적 역량의 증진과 재숙련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신기술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면서 노동시장 내 이동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및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장년의 기술향상(업스킬링), 직무전환(리스킬링) 등 개인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애 전 주기적으로 고용가능성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훈련기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5) 문한나·최영섭·박상오(2019),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RSC, ISC의 연계가능성 탐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 관계부처 합동(2023.1.27),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7) 관계부처 합동(2021.6.9),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8) McKinsey(2017), Jobs lost, jobs gained: workforce transitions in a time of automation, McKinsey Global Institute: San Francisco.

9) KDI 보도자료(2021.11.10.),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10) 중숙련 일자리(제조업 등) 자영업자 감소 → 디지털·신기술·저숙련·단시간 일자리 증가. 향후 5년간 SW 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3만 명+α(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 2. 23.)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역량은 OECD 국가에 비하여 높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¹¹⁾, 과거와는 달리 중장년층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작업환경의 스마트화와 일터혁신을 통한 중장년층의 생산성이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때 양질의 이·전직 교육훈련이 보완된다면 중장년층의 경험과 숙련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이동의 시기나 직종을 선택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혜원, 2022)¹²⁾.

또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인력수요가 급변하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나, 체계적인 인력수급 분석을 위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각 부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별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사방식이나 각 부처에서 공급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도출, 매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수급차 도출(양적 분석) 외에도 산업별 협회·기업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인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질적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중장기 전망체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지역별 세부 인력수요 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3.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세종시는 총 인구 대비 중장년층(만40~64세) 인구¹³⁾ 비중이 37.6%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7.1%로 중장년층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12.20.)¹⁴⁾.

▶ 시도별 중장년층 인구(2020-2021)

(단위: 천 명, %, %p)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총인구	중장년층	비중	총인구	중장년층	비중	증감	증감률	비중차
전국	50,133	20,086	(40.1)	50,088	20,182	(40.3)	96	0.5	(0.2)
서울	9,220	3,565	(38.7)	9,125	3,531	(38.7)	-34	-1.0	(0.0)
부산	3,294	1,330	(40.4)	3,271	1,317	(40.3)	-13	-1.0	(-0.1)
대구	2,373	976	(41.1)	2,351	969	(41.2)	-7	-0.7	(0.1)
인천	2,846	1,180	(41.5)	2,857	1,191	(41.7)	11	0.9	(0.2)
광주	1,447	572	(39.5)	1,445	575	(39.8)	3	0.5	(0.3)
대전	1,466	573	(39.1)	1,456	571	(39.2)	-2	-0.3	(0.1)
울산	1,109	475	(42.8)	1,095	473	(43.2)	-1	-0.3	(0.4)
세종	347	126	(36.4)	359	135	(37.6)	9	7.1	(1.2)
경기	12,928	5,244	(40.6)	13,081	5,353	(40.9)	109	2.1	(0.4)
강원	1,497	609	(40.7)	1,497	609	(40.7)	0	0.1	(0.0)
충북	1,575	625	(39.7)	1,568	627	(40.0)	2	0.3	(0.3)
충남	2,077	800	(38.5)	2,077	809	(38.9)	9	1.2	(0.5)
전북	1,760	688	(39.1)	1,746	686	(39.3)	-2	-0.3	(0.2)
전남	1,744	685	(39.3)	1,734	688	(39.7)	2	0.3	(0.3)
경북	2,570	1,035	(40.3)	2,563	1,036	(40.4)	0	0.0	(0.1)
경남	3,236	1,346	(41.6)	3,214	1,349	(42.0)	4	0.3	(0.4)
제주	644	259	(40.2)	648	263	(40.6)	4	1.6	(0.4)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12.20.),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p.9.

11) 연령별 역량수준이 30대 초반까지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이후 평균보다 낮은 상황(OECD, 2013).

12) 고혜원(2022). 청년층, 여성, 중장년층 직업훈련 현황과 과제, 제7차 직업능력개발 포럼(II) 발표자료.

13) 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국내에 상주하는 만 40~64세에 해당하는 내국인, 2021년 작성 대상은 생년월일이 1956. 11. 1.~1981. 10. 31. 기간에 속한 사람.

14) 통계청 보도자료(2022.12.20.),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시도별 중장년의 등록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세종(73.0%)이며, 증가율 또한 8.9%로 가장 높다(통계청 보도자료, 2022.12.20.)¹⁵⁾.

▶ 시도별 중장년층 등록취업자 수(2020-2021)

(단위: 천 명, %, %p)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중·장년	취업자 수	비중	중·장년	취업자 수	비중	증감	증감률	비중차
전국	20,086	13,041	(64.9)	20,182	13,402	(66.4)	361	2.8	(1.5)
서울	3,565	2,277	(63.9)	3,531	2,320	(65.7)	43	1.9	(1.8)
부산	1,330	833	(62.6)	1,317	843	(64.0)	11	1.3	(1.4)
대구	976	620	(63.5)	969	631	(65.2)	12	1.9	(1.7)
인천	1,180	770	(65.3)	1,191	797	(66.9)	27	3.5	(1.6)
광주	572	385	(67.3)	575	394	(68.5)	9	2.4	(1.3)
대전	573	384	(67.0)	571	390	(68.2)	6	1.5	(1.2)
울산	475	311	(65.6)	473	314	(66.4)	3	1.0	(0.8)
세종	126	90	(71.8)	135	99	(73.0)	8	8.9	(1.2)
경기	5,244	3,506	(66.9)	5,353	3,652	(68.2)	145	4.1	(1.3)
강원	609	396	(65.1)	609	405	(66.5)	9	2.2	(1.4)
충북	625	415	(66.4)	627	424	(67.7)	9	2.2	(1.3)
충남	800	522	(65.3)	809	538	(66.5)	16	3.1	(1.2)
전북	688	445	(64.7)	686	454	(66.2)	9	1.9	(1.5)
전남	685	426	(62.2)	688	436	(63.5)	10	2.3	(1.3)
경북	1,035	633	(61.1)	1,036	650	(62.8)	18	2.8	(1.7)
경남	1,346	859	(63.9)	1,349	880	(65.3)	21	2.5	(1.4)
제주	259	168	(64.7)	263	175	(66.3)	7	4.1	(1.6)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2.12.20.),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p.12.

세종시의 중장년 인구 및 중장년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원할 시 숙련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하향 이동을 방지하여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퇴직준비를 하는 고용상태에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주말반이나 야간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 바로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능력진단 및 상담 지원의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은 개인별 능력진단 및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되며, 이 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은 나의 현재 직무능력 등을 점검하고 향후 직업경로와 직업교육훈련 참여 목적(현재 직업 유지를 위한 직무향상 교육훈련인지 또는 고용연계(직업이동)을 위한 교육훈련인지 등)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에 진입하는 40세 이상의 재직자에게는 주기적으로 능력진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때 표준화된 진단 검사를 통해 종합적인 능력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직업과 관련된 개인별 액션플랜을 작성한 후 직업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혜원, 2022)¹⁶⁾.

15) 통계청 보도자료(2022.12.20.),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

16) 고혜원(2022). 청년층, 여성, 중장년층 직업훈련 현황과 과제, 제7차 직업능력개발 포럼(II) 발표자료.

거시적으로는 지역 인자위를 통해 지역 내 고용 위기 산업, 육성 필요 산업을 선정하고 수시로 훈련과정을 발굴·개설하여 훈련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인력·훈련 수급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역 내 기업·협단체, 대학,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기반 인력양성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 동향 파악 및 향후 변화 예측을 위한 전국·중장기 전망체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지역 인자위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공유하여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통계 Brief 1.

세종지역 신중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및 활성화 노력

박인 |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1.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장년층(40~64세)은 총인구의 40.6%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구의 구조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령층이다. 중·장년의 정의 및 연령 기준은 연구 및 조사의 목적, 정책사업,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어져 왔으며, 2017년 「新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는 50~69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8.8.)¹⁾.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신중년(5060)세대가 급증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 희망연령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대응, 미흡한 은퇴준비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7.8.8.).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제도와 개선과제’²⁾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법제화하였지만 2022년 노동자의 ‘주된일자리’ 퇴직연령은 49.3세로 2012년 기준 53세보다 3.7세 빨라졌다. ‘60세 정년제’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오히려 퇴직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은 72.3세로 OECD 평균인 64.5세 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50세 전후의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은퇴 후에도 장기간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김안정, 2017)³⁾.

하지만 경기 침체의 장기화,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풍토, 신중년 채용 수요 부족, 경력활용 가능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신중년 세대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중년들은 신체적 반응속도가 느릴 수 있으나 과거에 쌓아온 노동 경험으로 젊은 세대보다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실직과 은퇴 대비 일자리 안전망 강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적인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취업-실업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산업의 빠른 변화 등으로 전직·재취업 등 경력전환을 통한 일자리로의 재진입에 도움을 주는 고용연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수정 외, 2019)⁴⁾.

1) 관계부처 합동(2017.8.8.),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2) 정혜윤(2023),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국회미래연구원.

3) 김안정(2017), “우리나라 장년층의 노동시장 실질은퇴연령”, 한국고용정보원.

4) 이수정·양정승·송기원·김유정(2019), “중·장년층 고용 연계를 위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에 필자는 신중년 세대들이 기존의 '경험자산'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배움자산'의 통합으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주체로 역할을 향상시켜 현재의 고용 상태 유지 또는 이·전직 등으로 고용을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세종지역의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2022년 기준, 세종지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는 6,599명으로 전년대비 14.1%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중 50세 이상 발급자 수는 2,001명으로 전체 발급자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20년 25.5%, '21년 30.0%).

▶ 세종지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발급자 수	비중	발급자 수	비중	발급자 수	비중
〈전 체〉	4,241	100.0	5,784	100.0	6,599	100.0
19세 이하	69	1.6	91	1.6	89	1.3
20~29세	1,012	23.9	1,273	22.0	1,284	19.5
30~39세	996	23.5	1,239	21.4	1,378	20.9
40~49세	1,079	25.4	1,446	25.0	1,847	28.0
50~59세	697	16.4	1,103	19.1	1,262	19.1
60세 이상	388	9.1	632	10.9	739	11.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내일배움카드발급현황」

세종지역의 50세 이상 실업자훈련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515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5%가 감소한 수치이다.

▶ 세종지역 실업자훈련(구직자) 실시현황(50세 이상)

(단위: 명)

훈련과정	2021			2022		
	50~59세	60세 이상	합계	50~59세	60세 이상	합계
〈전 체〉	328	254	582	294	221	515
실업자계좌제	313	239	552	285	210	49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5	15	30	9	11	2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내일배움카드발급현황」

훈련직종별로 살펴보면, 세종지역에서는 7개 분야에서 훈련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훈련분야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으로 374명이 참여했다. 다음으로는 '음식 서비스직(81명)', '건설·채굴직(2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 2022년 세종지역 직종별 실업자훈련(구직자) 실시현황(50세 이상)

(단위: 명)

훈련직종	〈전체〉	남성			여성		
		50~59세	60세 이상	합계	50~59세	60세 이상	합계
〈전체〉	515	31	76	107	263	145	408
건설·채굴직	25	10	14	24	1	0	1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374	17	56	73	185	116	301
보건·의료직	11	0	0	0	9	2	11
식품가공·생산직	8	1	0	1	6	1	7
음식 서비스직	81	3	6	9	47	25	72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15	0	0	0	14	1	15
설치·정비·생산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1	0	0	0	1	0	1
공학기술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실업자훈련실시현황」

세종지역의 50세 이상 사업주훈련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538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전년대비 49.9%가 증가하였다.

▶ 세종지역 사업주훈련(재직자) 실시현황(50세 이상)

(단위: 명)

훈련과정	2021			2022		
	50~59세	60세 이상	합계	50~59세	60세 이상	합계
〈전체〉	179	180	359	247	291	538
사업주지원금훈련	109	162	271	175	278	453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2	0	2	5	0	5
지역산업맞춤형	68	18	86	67	13	8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사업주훈련실시현황」

세종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재직자) 훈련에 참여하는 신중년 세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자(구직자)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은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신중년 세대가 참여하는 실업자 훈련 분야도 7개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 훈련분야(돌봄 서비스직, 음식 서비스직 등)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종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도 '세종신중년센터'⁵⁾에서 세종지역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2022년 세종신중년센터에서는 4개 분야(인생설계, ICT 및 4차산업, 자격증, 일·활동지원)의 정규교육과정 22개(381명 수료, 수료율 84.1%) 과정과 신중년 맞춤형 기획특강 6개(112명 수료, 수료율 100%) 과정을 운영하였다⁶⁾.

세종신중년센터에서 공급되는 훈련까지 고려한다면, 세종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실업자·사업주훈련과 세종신중년센터의 정규교육과정 등을 통해 연간 약 1,300여 명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5)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신중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종신중년센터를 2022년 7월 개소함

6) 2022년 세종신중년센터 사업 성과보고서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세종인자위)는 세종지역에서의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세종지역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세종지역의 신중년 415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경험, 참여 분야, 향후 참여계획 등을 주된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23년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조사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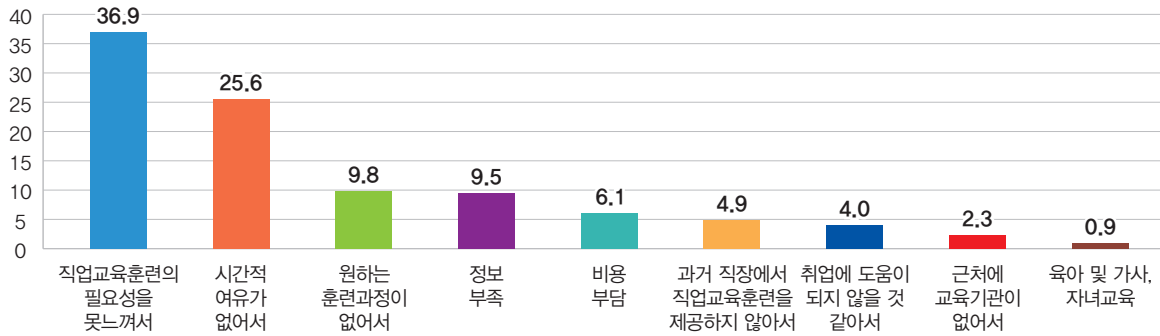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비중
〈전 체〉		415	100.0
성별	남성	208	50.1
	여성	207	49.9
연령	만50-54세	76	18.3
	만55-59세	182	43.9
	만60-64세	92	22.2
	만65-69세	65	15.7
학력	고졸 이하	215	51.8
	전문대졸	109	26.3
	대졸	91	21.9
퇴직 여부	퇴직	233	56.1
	재직 중	182	43.9

자료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3년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조사」

실태조사 전체 응답자(415명) 중 향후 직업이동 계획이 있는 응답자(304명)의 67.4%(205명)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과거 또는 현재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415명)의 16.4%(68명)에 불과하였다. 직업교육훈련 필요성의 인식 정도와 실제 경험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347명)들은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36.9%)’,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5.6%)’ 등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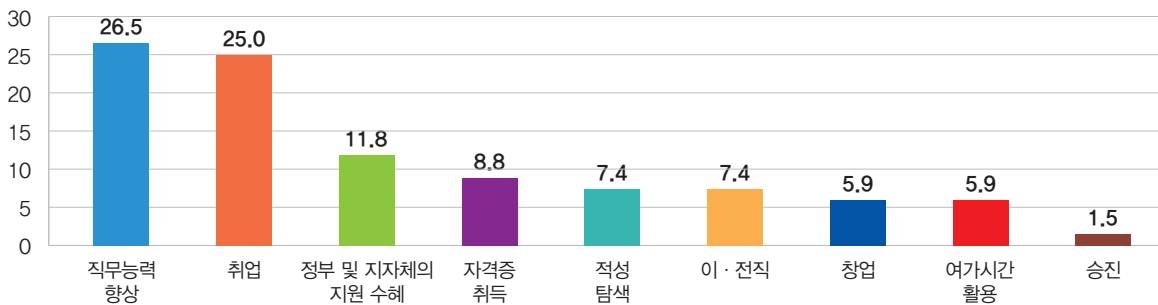
(단위: %)



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68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훈련 분야는 '경영·회계·사무(27.9%)' 분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지역은 '세종(54.4%)', '대전(35.3%)' 순이었으며, '직무능력 향상(26.5%)', '취업(25.0%)'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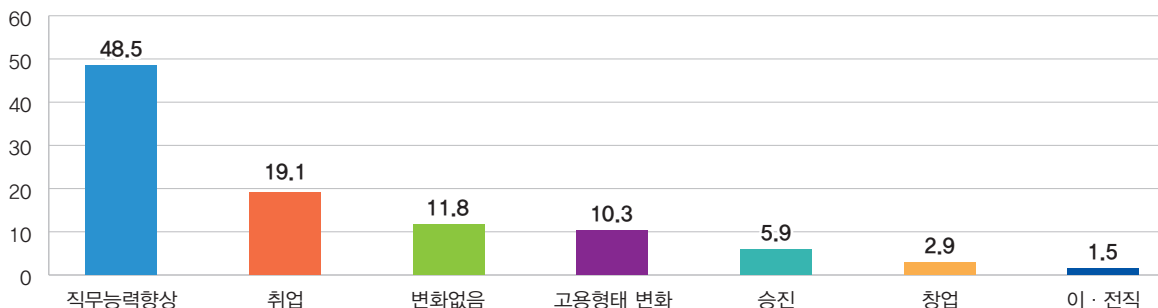
(단위: %)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이후 직업과 관련된 변화로는 '직무능력 향상(48.5%)', '취업(19.1%)' 등이었으며, '변화없음'도 1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직업교육훈련 참여 이후 직업 관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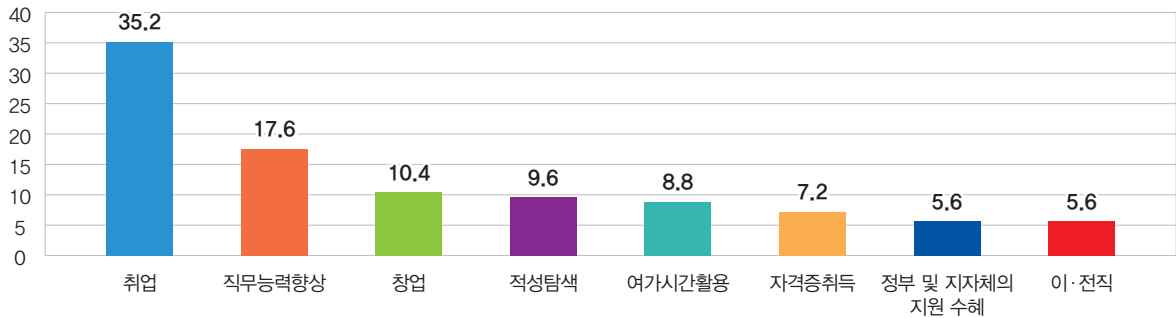
(단위: %)



향후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로는 '취업(35.2%)', '직무능력 향상(17.6%)', '창업(10.4%)'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이유는 '직무능력 향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향후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취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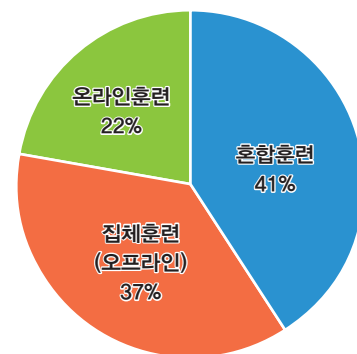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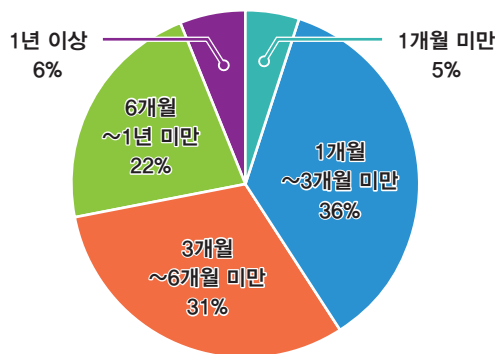
(단위: %)



향후 직업교육훈련 참여 계획이 있는 응답자(125명)들은 '1개월 ~ 3개월 미만(36%)' 또는 '3개월 ~ 6개월 미만(31%)'의 훈련기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방식으로는 응답자의 41%가 '혼합훈련(온·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직업교육훈련 선호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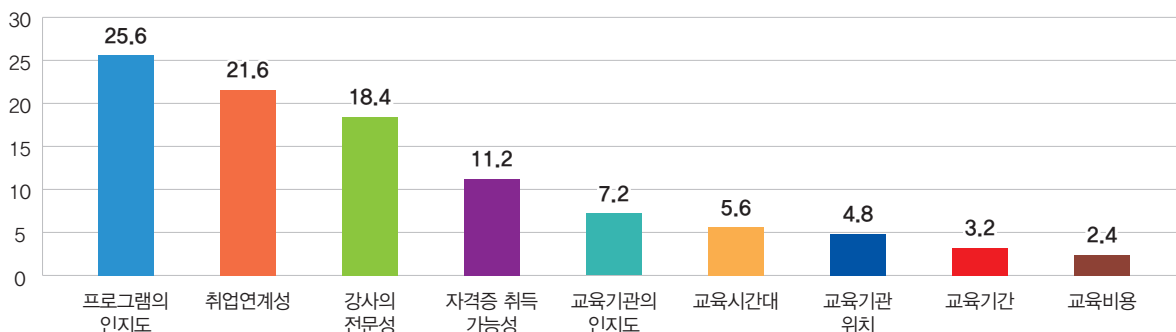
▶ 직업교육훈련 선호방식



또한 향후 직업교육훈련을 선택할 때 '프로그램의 인지도(25.6%)'와 '취업 연계성(21.6%)', '강사의 전문성(18.4%)', '자격증 취득 가능성(11.2%)'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직업교육훈련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단위: %)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디지털 분야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계획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정보보안',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초지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415명)의 40% 이상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보안’ 분야를 제외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50% 미만이지만 신중년 세대도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의향도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디지털 분야 직업교육훈련 참여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디지털 신기술 관련 기초지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 제조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정보 보안	실감형 콘텐츠	핀테크	무인 이동체 (드론)
예	415	44.8	35.2	40.0	37.6	42.4	36.0	51.2	28.0	38.4	33.6
아니오	415	55.2	64.8	60.0	62.4	57.6	64.0	48.8	72.0	61.6	66.4

3.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한 노력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신중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중년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인구 구조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령층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은 변화하는 일자리와 함께 요구되는 직무의 성격과 숙련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의 삶(재취업, 이·전직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22.2월 시행)으로 개정하여 종사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로 인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제공하는 한편, 미래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할 할 수 있게 되었다.

법 개정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세종지역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신중년 세대의 기술변화 대응 및 적응, 체계적인 은퇴 준비의 필요성 등이 맞물리면서 신중년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신중년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세종지역에서의 신중년 직업능력개발은 걸음마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경험 부족,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절대적 부족, 그로 인한 훈련과정의 낮은 다양성과 신중년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좁은 선택의 폭 등이 세종지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직업능력개발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황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step by step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세종인자위에서 세종지역의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참여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았다는 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기대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지역 내에서 신중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의미, 필요성, 중요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과 난이도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세종인자위에서 실시한 「2023년 세종지역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로 '취업(35.2%)', '직무능력 향상(17.6%)', '창업(10.4%)'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요자 측면에서 신중년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목적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세종지역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있어 큰 한계가 훈련기관 인프라의 부족이다.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세종신중년센터, 세종시니어클럽 등 신중년 관련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2022년 설립된 세종신중년센터에서는 설립원년부터 세종지역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의 훈련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세종인자위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하다.

따라서 세종인자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초·심층조사에서 도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요를 토대로 목적별, 난이도별 훈련과정을 공급한다면 세종지역에서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토대 마련은 물론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은퇴 시기의 단축, 실제 은퇴 연령의 증가, 초고령화 시대 도래 등으로 신중년 세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로컬(지자체)에서도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신중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강화하여 젊은 세대와 더불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신중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중년들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지역동향_2023년 3분기

지역동향 한눈에 보기

우승현 |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임연구관

김제나 |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출하지수도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하였으나, 재고지수는 2023년 3분기 점차적으로 감소폭을 나타내며('23.7월 46.6% → 8월 39.9% → 9월 28.3%) 재고율은 개선되고 있음
- ▶ 2023년 9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감소로 전환('23.8월 +7.8% → 9월 -1.1%) 하였으며,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확대('23.8월 +7.2% → 9월 +16.1%)
- ▶ 2023년 9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농축수산물('23.2분기 +0.9% → 3분기 +2.8%)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석유류('23.2분기 -20.4% → 3분기 -15.1%)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모두 상승폭 확대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 전환 이후 감소폭이 축소('23.7월 +2조 6,512억원 → 8월 -2조 8,961억원 → 9월 4,840억원)되었으며,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23.7월 +384억원 → 8월 +889억원 → 9월 418억원)
- ▶ 2023년 9월중 전국기준 무역수지는 3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흑자로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선박·철강·디스플레이·가전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여 중국(110.0억 달러), 미국(100.4억 달러), 아세안(94.1억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함¹⁾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수출은 약 3.14억 달러, 수입은 3.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0.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9월중 (수출 품목별) 의약품(22.9%), 화장품(168.1%) 수출이 증가했으나, 인쇄회로(-38.2%), 기타정밀화학원료(-26.6%) 등의 수출 감소가 나타나고, (수입 품목별) 유연탄(-39.0%), 곡류(-55.5%) 등의 수입이 감소 대비 의약품(58.3%), 펄프(19.5%) 등의 수입은 증가함
- ▶ 2023년 누계 기준 전국 지자체별 수출·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누계 8.9억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비중 0.19%로 16위, 수입 누계 11억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비중 0.23%로 16위를 기록함

1)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수출입 동향」(2023.10.1.)

- ▶ 2023년 3분기 세종의 15세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21만 5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명 증가하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6.6%로 0.8%p 증가함. 취업자는 21만 2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5.2%로 0.6%p 상승함. 실업자는 4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7%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0%로 0.1%p 상승함
- ▶ 2023년 9월중 광업제조업은 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17만 1천명으로 4.5%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은 8천명으로 동일하였음
- ▶ 2023년 9월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16,902개이며, 신규성립사업장은 729개로 전년동월대비 145개소 감소하였으며, 소멸사업장은 112개 전년동월대비 1,101개소 감소함. 피보험자는 80,971명이며, 순수취득자는 3,98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명 증가하였고, 순수상실자는 3,744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 2023년 9월중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51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명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19명), 제조업(+19명) 중심으로 증가함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구인인원은 1,182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5명이 감소한 반면, 구직인원은 8,565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06명 증가함. 직종별로 '제조 단순직(70명)'의 구인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직인원은 '건설·채굴직(107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인구는 총 전입자수 12,103명, 총 전출자수 12,532명으로 429명이 순유출됨. 성별로는 남자 276명, 여자 162명이 순유출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29세 층만 75명이 순유입됨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95건(-23.4%) 감소한 1,293건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발급이 감소하였지만 성별 발급건수는 남성(156건) 대비 여성(810건)의 발급량이 약 3배 높게 나타남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실업자훈련 실시인원은 총 16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1명 감소하여 -54.8% 증감률을 나타냈으며, 남성(28명)과 여성(138명)의 성별 비중은 각각 16.9%, 83.1%로 나타남
-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사업주훈련 실시인원은 총 69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0명 감소하여 -20.7% 증감률을 나타냈으며, 근로자훈련 실시인원은 총 27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8명 증가하여 21.5% 증감률을 나타냄

지역동향_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산업·경기 동향



제조업 생산²⁾

- 2023년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하였으며, 2023년 9월 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확대('23.8월 -5.3% → 9월 -13.1%)
 - 경공업 분야에서는 식료품이 -5.5% 하락하였지만, 고무·플라스틱 제품은 39.7% 상승
 - 중공업 분야에서는 전자·영상·음향·통신이 -42.8%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확대('23.8월 -33.5% → 9월 -42.8%)되었지만, 화학물질 및 제품 -15.0%로 감소폭 축소('23.8월 -28.6% → 9월 -15.0%)
 - 비금속 광물제품 및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대비 각각 15.3%, 6.0% 증가
- 출하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하였으나, 재고지수는 2023년 3분기 점차적으로 감소폭을 나타내며('23.7월 46.6% → 8월 39.9% → 9월 28.3%) 재고율은 개선되고 있음

▶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비중〉	2022년						2023년 ²⁾					
		연간	8월	1/4	2/4	3/4	4/4	1/4	2/4	3/4 ^{가)}	7월 ^{가)}	8월 ^{가)}	9월 ^{가)}
• 생산	〈100.0〉	4.2	6.0	4.8	4.6	3.4	3.8	-5.4	1.5	-6.4	0.3	-5.3	-13.1
	〈전국〉	1.4	0.0	6.0	5.6	1.4	-6.7	-10.0	-7.8	-2.1	-8.3	-0.8	3.0
〈경공업〉		—	—	—	—	—	—	—	—	—	—	—	—
(식료품)	〈9.0〉	-1.5	18.8	-13.0	-7.7	11.7	6.2	9.3	13.9	4.2	6.7	12.1	-5.5
(고무·플라스틱제품)	〈5.2〉	2.3	2.4	2.7	6.8	1.9	-2.2	55.0	61.7	42.8	49.7	48.9	39.7
〈중공업〉		—	—	—	—	—	—	—	—	—	—	—	—
(전자·영상·음향·통신)	〈20.1〉	7.6	10.6	32.3	17.7	9.0	-20.4	-47.3	-41.9	-39.0	-40.2	-33.5	-42.8
(화학물질 및 제품)	〈15.9〉	3.4	-23.9	6.5	0.4	-18.1	24.1	-16.8	-2.8	-11.3	7.7	-28.6	-15.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12.1〉	18.2	3.4	16.4	22.0	14.9	18.9	13.3	16.2	12.0	22.3	13.4	6.0
(비금속 광물제품)	〈9.6〉	8.3	11.5	12.5	1.9	9.8	9.3	10.6	16.5	11.8	5.1	16.5	15.3
(전기장비)	〈6.1〉	0.1	0.3	-22.5	2.5	-5.2	32.2	63.0	61.0	26.7	59.4	21.2	-1.2
• 출하		2.5	6.2	3.0	4.9	3.3	-1.2	0.8	3.7	-0.2	1.3	1.3	-3.3
• 재고		28.9	-6.9	4.7	-8.1	-6.9	28.9	28.2	46.3	28.3	46.6	39.9	28.3

주 1) 〈 〉 내는 세종지역 제조업(2021년) 내 부가가치 비중

2) 최근 3개월 수치는 잠정치(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최종값으로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2)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대형소매점 판매³⁾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
 - 전분기대비 대형소매점 판매는 증가하였으나('23.2분기 2.1% → 3분기 3.6%), 2023년 9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감소로 전환('23.8월 +7.8% → 9월 -1.1%)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확대('23.8월 +7.2% → 9월 +16.1%)

▶ 세종지역 소비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2년						2023년 ⁴⁾					
	연간	9월	1/4	2/4	3/4	4/4	1/4	2/4	3/4 ^{p)}	7월 ^{p)}	8월 ^{p)}	9월 ^{p)}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¹⁾²⁾	1.7	2.4	2.9	1.1	-0.9	3.7	-5.4	2.1	3.6	4.7	7.8	-1.1
•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³⁾	-9.0	7.3	-17.1	-10.3	-3.6	-3.8	11.2	5.1	6.5	-3.0	7.2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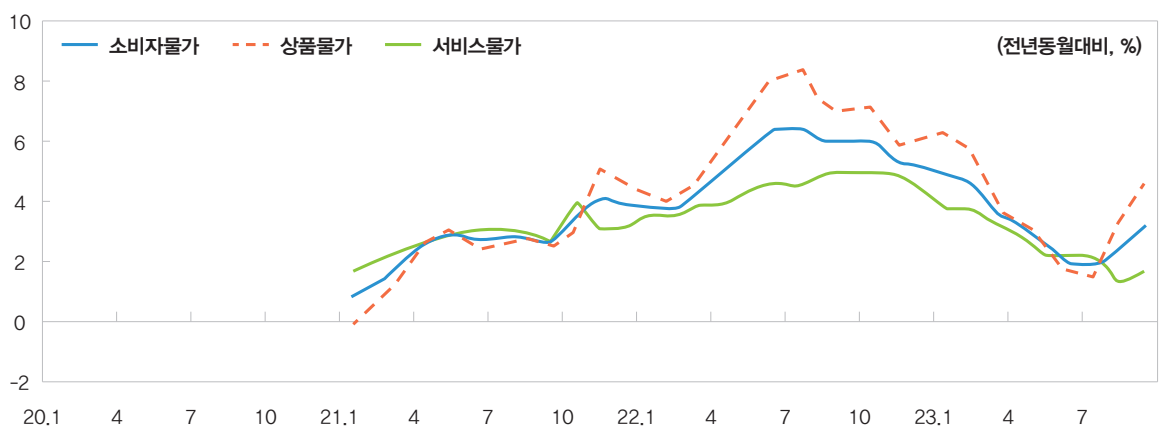
- 주 1) 매장면적 3,000㎡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2) 세종지역의 대형소매점은 대형마트로만 구성
 3) 확정치
 4) 최근 3개월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최종값으로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소비자물가⁴⁾⁵⁾

- 2023년 9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전년동월대비)는 전월에 비해 확대('23.8월 +2.5% → 9월 +3.2%)
 - 전분기대비 농축수산물('23.2분기 +0.9% → 3분기 +2.8%)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석유류('23.2분기 -20.4% → 3분기 -15.1%) 가격 하락폭이 축소

▶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0.11.)

※ 자세한 사항은 [부록1], [부록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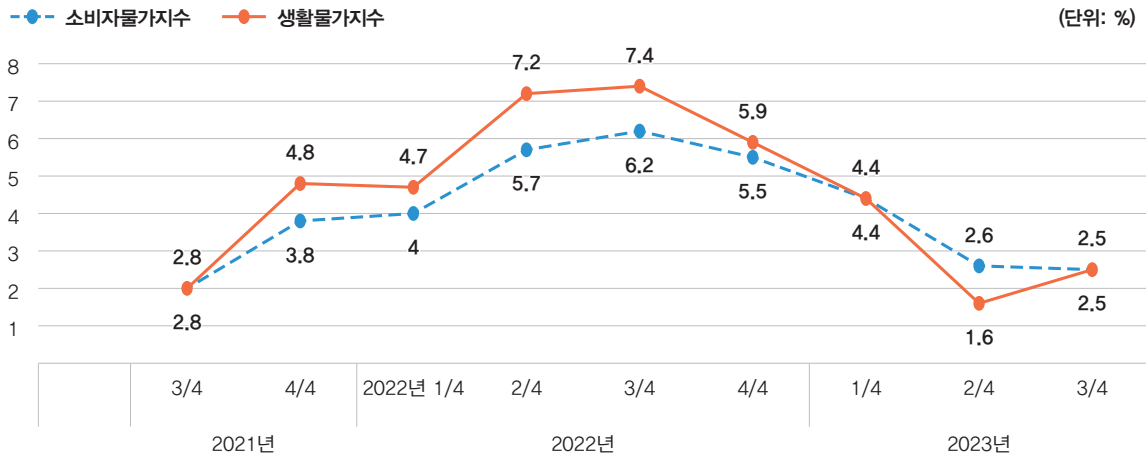
3)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4)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0.11.)

5) 충청지방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2023.11.20.)

-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2.5%, 2.5% 상승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중 의료 및 신발 가격이 8.1%로 가장 많이 상승함

▶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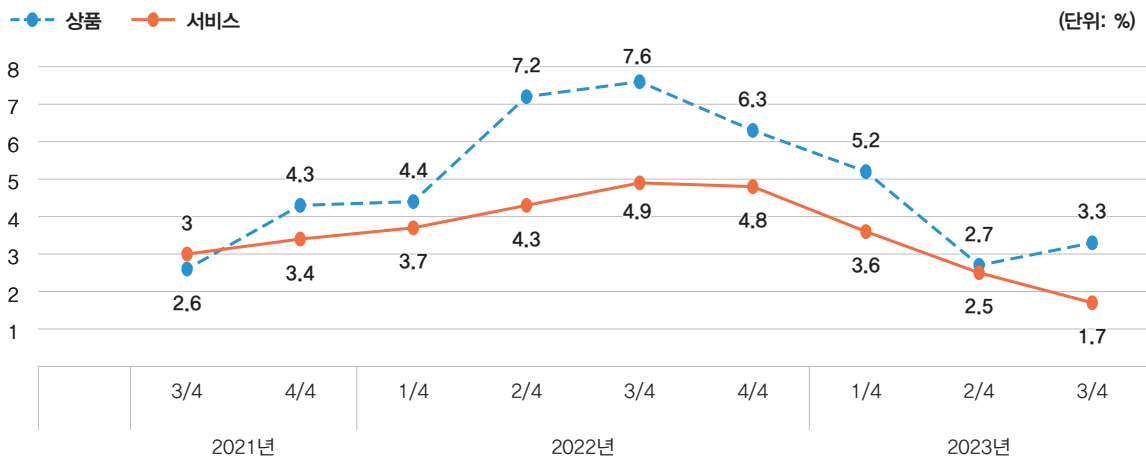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지조사, 충청지방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2023.11.20.) 재편집

※ 자세한 사항은 [부록2], [부록4] 참조

- 품목성질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각각 3.3%, 1.7% 상승함
 -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2.8% 상승한 가운데, 수산물 8.0%과 농산물 5.0%은 상승하고, 수산물은 -0.2% 하락함
 - 공업제품은 석유류(-15.1%)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섬유제품(7.9%) 가격이 상승
 -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분기대비 하락('23.7월 27.6% → 8월 24.3% → 9월 21.0%) 하고 있지만 상품 중에서는 전년동기대비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임
 - 서비스 중 집세(-1.0%) 가격은 하락한 가운데,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0.9%, 3.0% 상승함

▶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성질별 등락률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지조사, 충청지방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2023.11.20.) 재편집

※ 자세한 사항은 [부록3], [부록4] 참조

주택가격⁶⁾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주택전세가격도 2.19%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
- 2023년 9월 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상승폭이 확대('23.8월+0.31% → 9월+0.38%)
- 주택전세가격의 상승폭도 확대('23.8월 +0.56% → 9월 +1.09%)

▶ 세종지역 주택가격 관련 지표¹⁾

(단위: 전월대비, %)

	2022년						2023년					
	연간	9월	1/4	2/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 주택매매가격	-14.46	-1.37	-1.92	-1.65	-2.99	-8.58	-7.15	2.40	1.52	0.82	0.31	0.38
아파트	-17.12	-1.66	-2.45	-2.04	-3.64	-10.00	-8.04	2.68	1.71	0.93	0.35	0.42
• 주택전세가격	-17.61	-1.55	-3.63	-2.89	-3.57	-8.70	-7.50	0.82	2.19	0.53	0.56	1.09
아파트	-20.28	-1.83	-4.18	-3.35	-4.17	-10.16	-8.45	0.93	2.49	0.60	0.64	1.24

주 1) 분기·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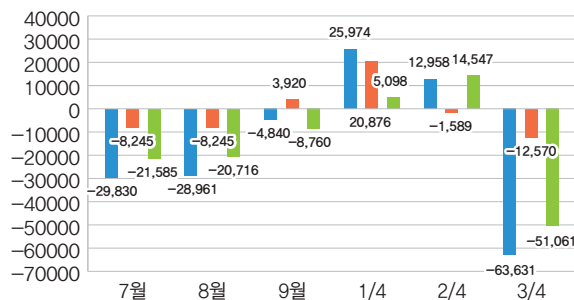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세종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⁷⁾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 전환 이후 감소폭이 축소('23.7월 +2조 6,512억원 → 8월 -2조 8,961억원 → 9월 4,840억원)되었으며,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23.7월 +384억원 → 8월 +889억원 → 9월 418억원)
- (수신) 예금은행은 저축성 예금이 늘어나며 증가 전환('23.7월 -1조 586억원 → 8월 -8,245억원 → 9월 +3,920억원)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23.7월 -2조 1,585억원 → 8월 -2조 716억원 → 9월 -8,760억원)
- (여신) 예금은행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가 축소('23.7월 +388억원 → 8월 +889억원 → 9월 +598억원)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감소폭이 확대('23.7월 -4억원 → 8월 -0억원 → 9월 -18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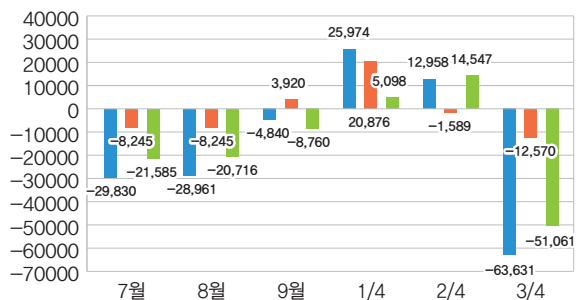
▶ 세종지역 금융기관 수신(3/4분기)

■ 전체 ■ 예금은행 ■ 비은행금융기관 (단위: 억원)



▶ 세종지역 금융기관 여신(3/4분기)

■ 전체 ■ 예금은행 ■ 비은행금융기관 (단위: 억원)



※ 자세한 사항은 [부록5], [부록6] 참조

6)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7)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년 3월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2023.5.25.)

지역동향_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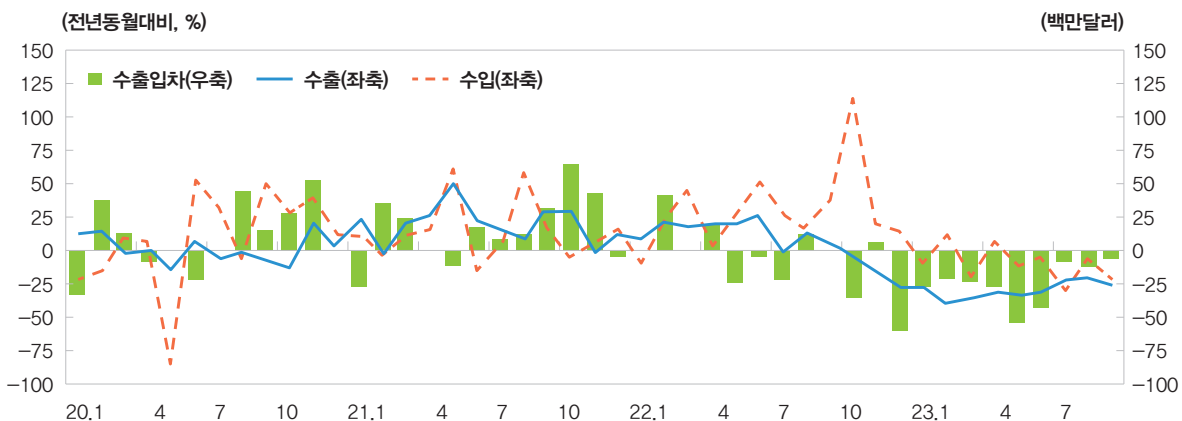
세종지역 수출입 동향



수출입 총괄⁸⁾

- 2023년 9월중 세종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확대('23.8월 -20.8% → 9월 -25.5%)
 - 인쇄회로('23.8월 -34.7% → 9월 -38.2%)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석유화학제품('23.8월 +1.2% → 9월 -9.0%)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23.8월 +9.8% → 9월 -6.8%)이 감소로 전환
- 수입도 감소폭이 확대('23.8월 -4.1% → 9월 -22.3%)
 - 쌀('23.8월 -14.8% → 9월 -55.5%)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
- 9월중 전국기준 무역수지는 3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흑자로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 · 일반기계 · 선박 · 철강 · 디스플레이 · 가전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여 중국(110.0억 달러), 미국(100.4억 달러), 아세안(94.1억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함⁹⁾

▶ 세종지역 수출입 및 수출입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 자세한 사항은 [부록7], [부록8], [부록9], [부록10] 참조

- 전국 지자체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지역은 전년동월대비 -25.5% 감소('22.9월 1.4억 달러 → '23.9월 1.1억 달러)하였으며, 2023년 수출 누계 8.9억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비중 0.19%로 16위를 기록함
- 전국 지자체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지역은 전년동월대비 -22.3% 감소('22.9월 1.4억 달러 → '23.9월 1.2억 달러)하였으며, 2023년 수입 누계 11억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비중 0.23%로 16위를 기록함

8)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9)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수출입 동향」(2023.10.1.)

2023년 3분기 수출입 동향¹⁰⁾

- 수출은 약 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기타 중화학 공업품,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등은 수출 증가하였으나, 인쇄회로,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분기대비 23.2% 감소

▶ 세종지역 주요품목별 수출액¹⁾ 증감률

(단위: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p	기여도
수출	13.1	15.2	21.1	5.6	-15.5	-34.4	-31.7	-23.2	-
기타 중화학 공업품	-20.8	0.5	21.8	12.5	-14.5	25.7	14.1	37.4	1.52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	26.2	21.5	67.0	4.7	8.9	7.3	5.2	11.6	1.38
반도체 제조용 장비	-100.0	-	-	-	-	3,586.5	-	5,976.0	1.05
신발류	-97.6	-56.1	-99.7	43.4	-99.9	-47.0	19,355.0	814.8	0.39
회로보호 접속기	29.8	32.9	-29.7	-22.8	-10.9	-30.1	24.8	42.6	0.37
기타 금속제품	-48.1	19.5	58.7	53.1	-3.9	-35.8	-58.7	-76.2	-0.94
비철금속	79.7	115.9	103.9	19.1	-44.7	-55.6	-63.7	-70.2	-0.96
무선통신기기	447.8	375.3	344.2	96.4	2.5	-65.4	-55.7	-58.9	-4.65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	-2.7	8.5	2.0	-14.5	-22.9	-67.1	-64.8	-51.0	-5.33
인쇄회로	33.7	21.0	6.2	15.8	-38.6	-61.8	-48.5	-39.7	-11.11

주 1)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기여도순) 상위5개, 하위5개 품목을 작성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서비스, 무역통계, 충청지방통계청 「2023년 3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2023.11.20.)

- 수입은 약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컴퓨터 주변기기, 측정시험기 등은 수입 증가하였으나, 쌀, 석탄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동분기대비 19.5% 감소

▶ 세종지역 주요품목별¹⁾ 수입액 증감률

(단위: 전년동분기대비, %, %p)

구분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2022 4/4	2023 1/4	2023 2/4	2023 3/4p	기여도
수입	7.8	15.2	25.4	26.4	40.0	-9.4	-5.0	-19.5	-
컴퓨터 주변기기	45.4	1,886.0	3,709.3	2,646.5	3,070.8	8.7	56.0	71.7	0.92
측정시험기	40.6	33.2	8.1	61.7	59.1	54.8	103.3	15.1	0.72
전동기	-9.1	-28.8	-11.3	-17.0	75.4	43.4	31.1	32.3	0.61
회로보호접속기	60.6	6.2	-13.8	-12.7	-16.8	8.5	21.2	24.7	0.56
기타 비내구소비재	-16.9	-43.5	20.3	48.7	11.7	84.3	53.8	37.6	0.55
유리 및 유리제품	-17.9	-19.1	-17.8	31.1	-49.9	-84.2	-86.1	-82.1	-1.05
기타 유기화합물	74.4	34.5	32.9	7.3	-16.2	-25.2	-18.4	-15.3	-1.07
소고기	-	-	-	-	-	-	195.9	-54.9	-1.25
석탄	-	-	-	-	-	9.6	-22.8	-26.0	-3.86
쌀	8.8	-6.0	-18.3	23.6	69.4	-72.1	-17.4	-53.2	-15.89

주 1)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기여도순) 상위5개, 하위5개 품목을 작성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서비스, 무역통계, 충청지방통계청 「2023년 3분기 충청권 지역경제동향」(2023.11.20.)

10)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023년 9월 대전세종충남 수출입 동향」(2023.10.23.)

지역동향_2023년 3분기

세종지역 노동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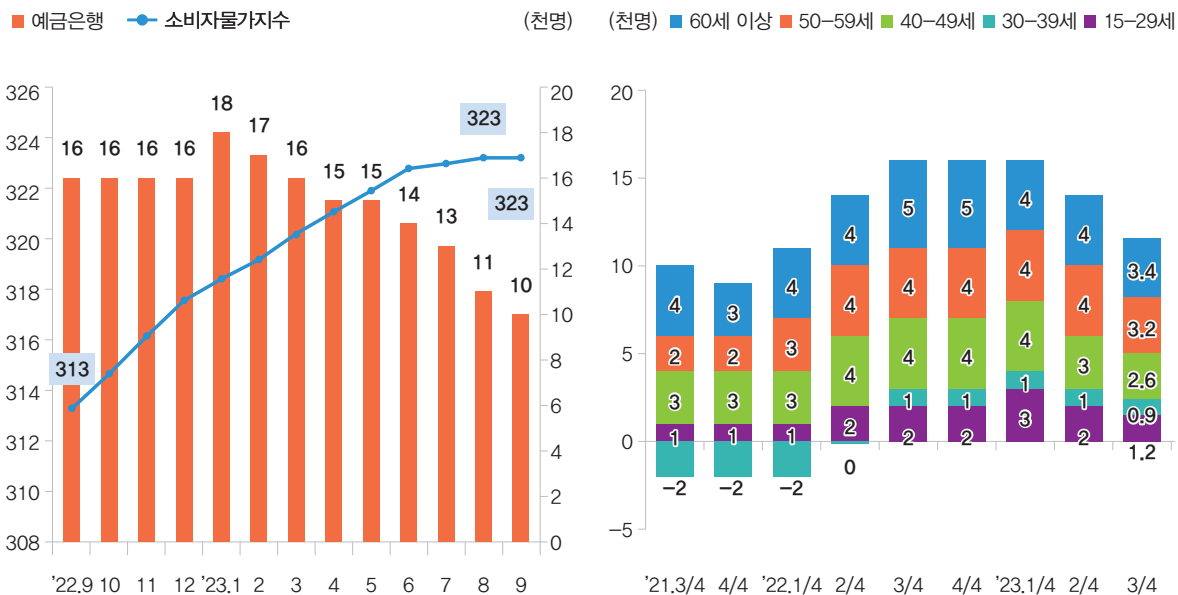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¹¹⁾¹²⁾

- **(15세 이상 인구)** 2023년 9월 중 세종의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는 3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명(3.2%)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 유지
 - 2023년 3분기 40대 인구가 가장 큰 비중(63천명, 23.8%)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기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 2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4.3%)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여자는 9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9.3%) 증가하였고, 남자는 12만 2천명으로 1천명(1.0%)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 66.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성별로 보면 여자는 56.3%로 전년동월대비 3.0%p 상승하였으나, 남자는 76.2%로 1.5%p 하락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1.0%)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하였으나, 여자는 7만 1천명으로 3.1% 감소하였음

▶ 15세 이상 인구 및 증감

▶ 연령별 인구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자세한 사항은 [부록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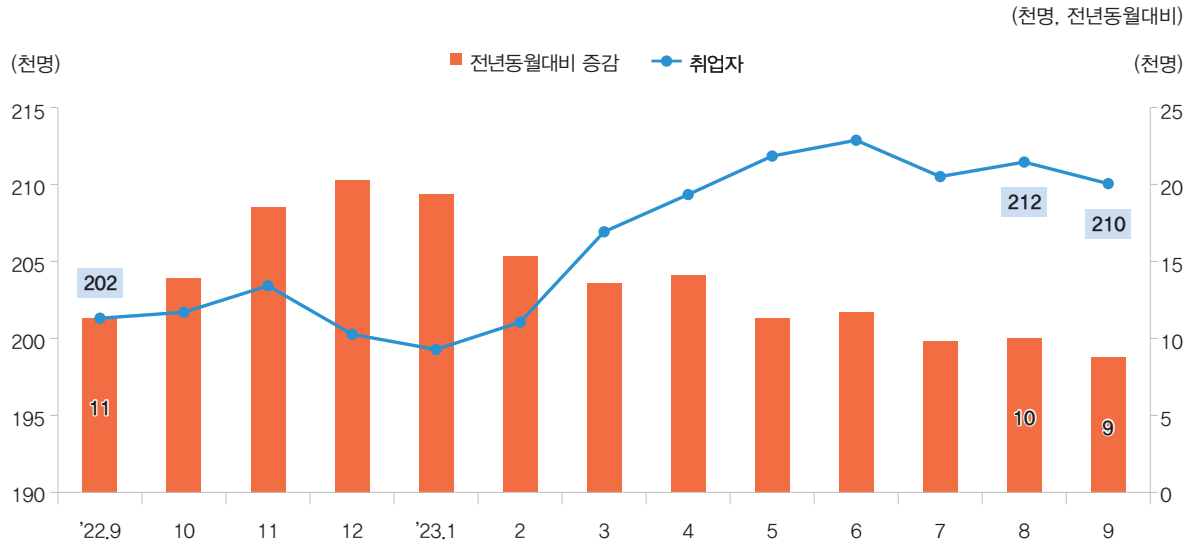
11) 충청지방통계청, 「2023년 9월 충청지역 고용동향」(2023.10.13.)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3년 9월 대전·세종·충청 노동시장 동향」(2023.11.3.)

취업자 동향¹³⁾¹⁴⁾

- (취업자) 2023년 9월중 취업자는 2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4.3%) 증가

▶ 취업자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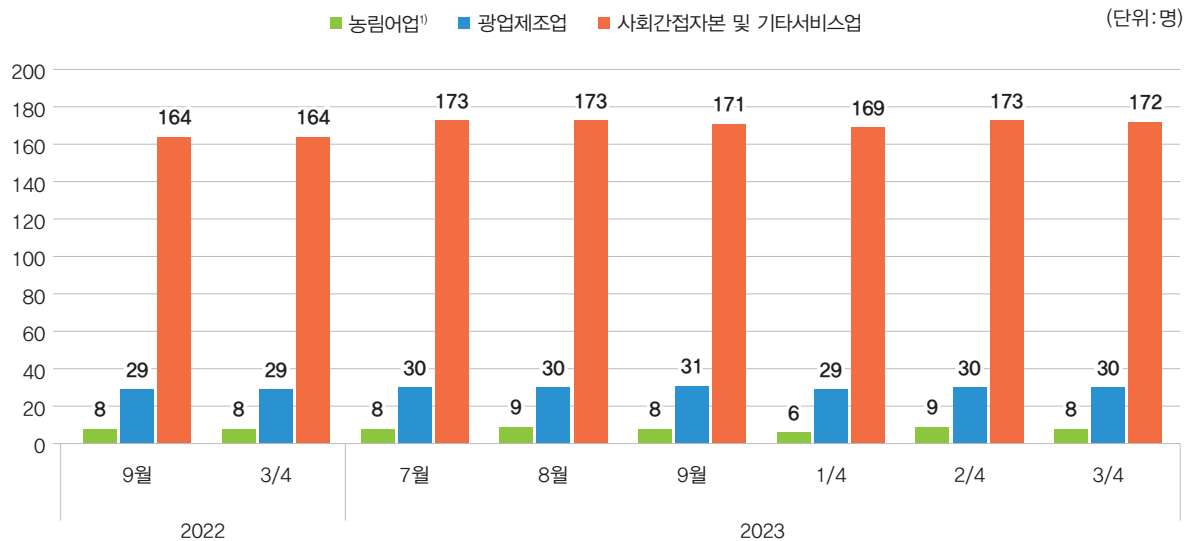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자세한 사항은 [부록11] 참조

- (성별) 여자는 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7.5%) 증가하였고, 남자는 12만 1천명으로 2천명(2.0%) 증가하였음
- (산업별) 광업제조업은 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17만 1천명으로 4.5%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은 8천명으로 동일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동향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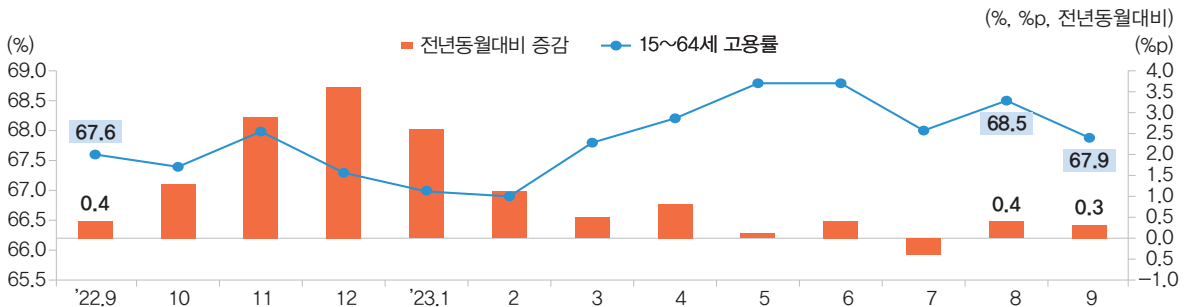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부록11] 참조

13) 충청지방통계청, 「2023년 9월 충청지역 고용동향」(2023.10.13.)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3년 9월 대전·세종·충청 노동시장 동향」(2023.11.3.)

-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7% 감소하였으나, 가무종사자는 5만 5천명으로 8.1%, 관리자·전문가는 6만 8천명으로 4.8%,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는 4만 5천명으로 3.2%, 서비스·판매종사자는 3만 4천명으로 2.1% 각각 증가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5.5%)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3만 7천명으로 1천명(0.8%) 감소하였음
- **(취업시간대별)**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5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7% 증가하였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만명으로 59.0% 감소하였음
- **(고용률)** 2023년 9월중 고용률은 65.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성별로 보면 여자는 54.6%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하였으나, 남자는 75.5%로 0.7%p 하락하였음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 15~6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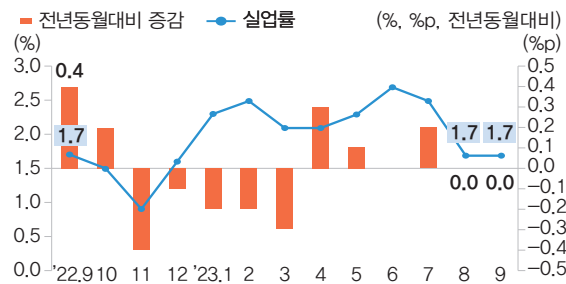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자세한 사항은 [부록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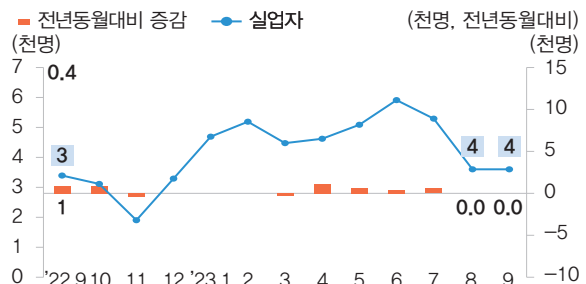
실업자 동향¹⁵⁾¹⁶⁾

- **(실업자)** 2023년 9월 중 실업자는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여자는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136.4%) 증가하였으나, 남자는 1천명으로 1천명(-56.5%) 감소하였음
- **(실업률)** 2023년 9월 중 실업률은 1.7%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하였으나, 여자는 0.8%로 1.1%p 상승하였음

▶ 실업률



▶ 실업자 및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자세한 사항은 [부록11] 참조

15) 충청지방통계청, 「2023년 9월 충청지역 고용동향」(2023.10.3.)

1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3년 9월 대전·세종·충청 노동시장 동향」(2023.11.3.)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고용동향¹⁷⁾

- 2023년 3분기 세종의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는 32만 3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 1천명(3.7%)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21만 5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명(4.8%)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6.6%로 0.8%p 상승하였음
- 취업자는 21만 2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만명(4.7%)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5.2%로 0.6%p 상승하였음
- 실업자는 4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7%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0%로 0.1%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보면 15~29세에서 6.5%로 전년동분기대비 2.0%p 상승하였으나, 30~59세에서 1.4%로 동일하였고, 60세 이상에서 1.5%로 1.0%p 하락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0만 8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천명(1.4%) 증가하였음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22. 3/4분기	2023. 2/4분기	2023. 3/4분기	전년동분기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312	322	323	11	3.7
경제활동인구	205	217	215	10	4.8
(참가율)	65.8	67.3	66.6	0.8	—
취업자	201	212	211	10	4.7
(고용률)	64.6	65.7	65.2	0.6	—
실업자	4	5	4	0	7.7
(실업률)	1.9	2.4	2.0	0.1	—
– 15-29	4.5	8.0	6.5	2.0	—
– 30-59	1.4	1.7	1.4	0.0	—
– 60이상	2.5	1.5	1.5	-1.0	—
비경제활동인구	107	105	108	2	1.4

자료 충청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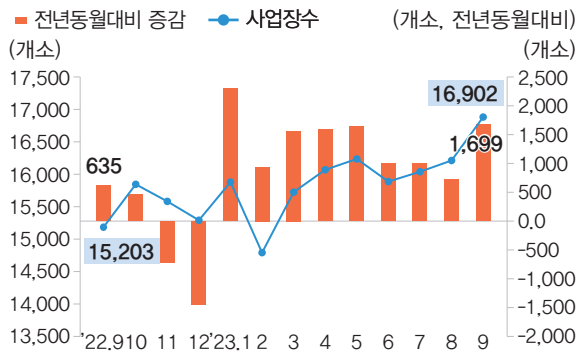
피보험자 동향¹⁸⁾

- (사업장) 2023년 9월 중 세종지역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16,902개소로 전년동월대비 1,699개소 증가
 - 신규성립사업장은 729개소로 전년동월대비 145개소 감소하였으며, 소멸사업장도 112개소로 전년동월대비 1,101개소 감소

17) 충청지방통계청, 「2023년 9월 충청지역 고용동향」(2023.10.3.)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023년 9월 대전·세종·충청 노동시장 동향」(2023.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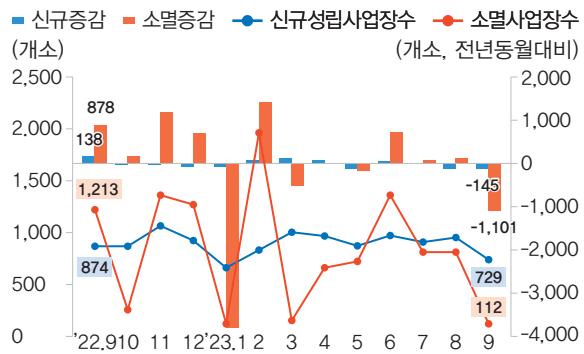
▶ 사업장 및 증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자세한 사항은 [부록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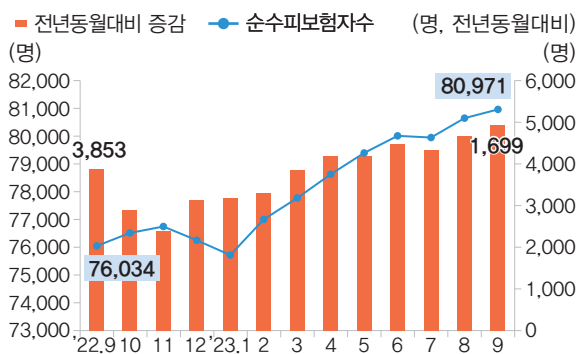
▶ 신규·소멸 사업장 및 증감



•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80,97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37명 증가

– 순수취득자는 3,98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5명 증가하였으며, 순수상실자는 3,744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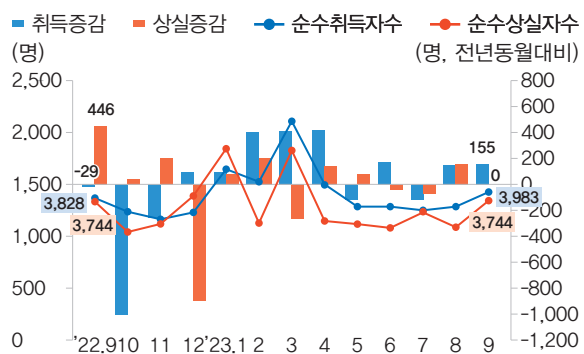
▶ 피보험자 및 증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대전지방고용노동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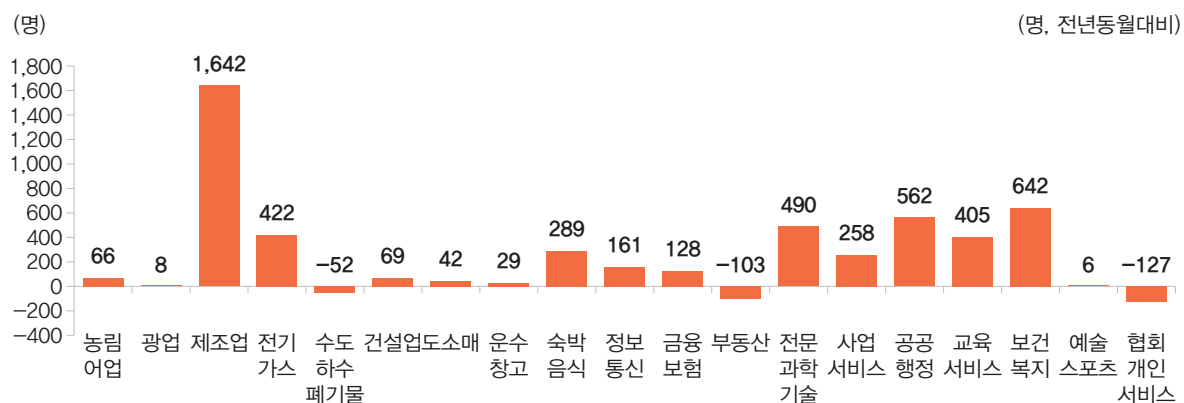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부록13] 참조

▶ 순수취득·상실자수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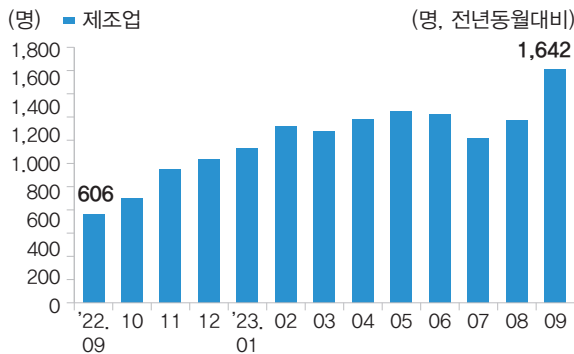


• (산업별)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642명) 증가, 협회·개인서비스업(-127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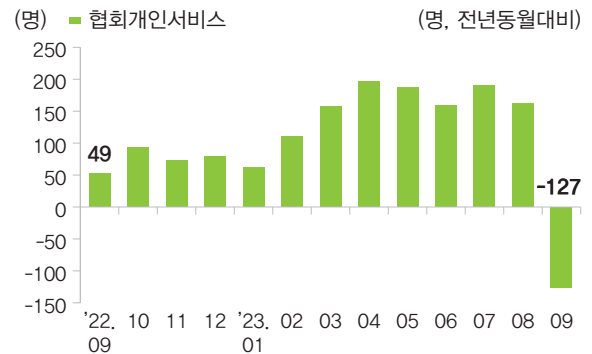
▶ 산업별 증감



▶ 제조업 증감



▶ 부동산업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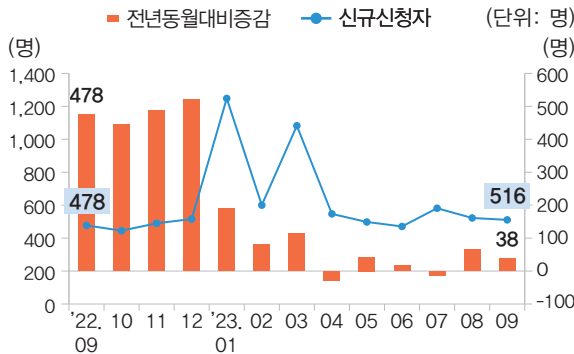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자세한 사항은 [부록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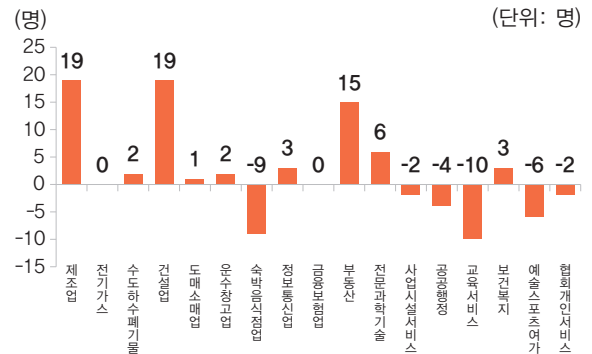
실업급여 동향¹⁹⁾

- (신규신청자) 2023년 9월 중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51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명 증가
 - 산업별로는 건설업(+19명), 제조업(+19명) 중심으로 증가

▶ 실업급여 신청자



▶ 산업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 증감



주 '19.10.1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실업급여 신청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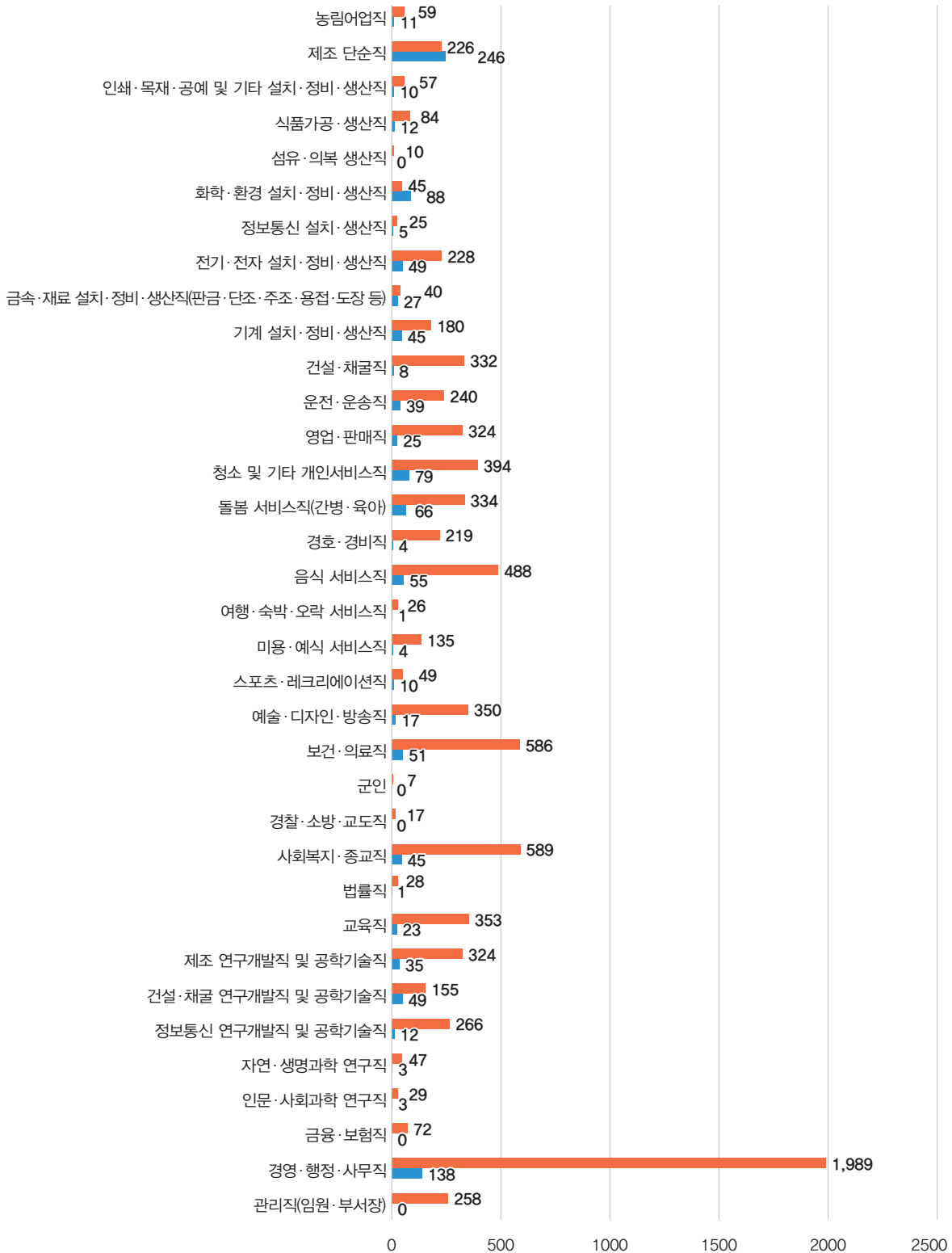
구인구직 동향

- 2023년 9월 중 세종지역 구인인원은 994명으로 전월대비 229명 감소하였으며, 구직인원은 8,207명으로 전월대비 429명 감소함
 - 직종별로 구인인원은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72명)'의 감소가 가장 컸으며, 구직인원은 '경영·행정·사무직(145명)'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짐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구인인원은 1,182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35명이 감소한 반면, 구직인원은 8,565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06명 증가함
 - 직종별로 '제조 단순직(70명)'의 구인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직인원은 '건설·채굴직(107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세종지역 구인구직 현황

■ 구직인원 ■ 구인인원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 자세한 사항은 [부록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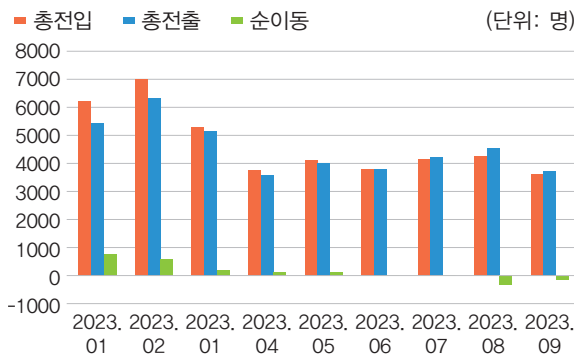
지역동향_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인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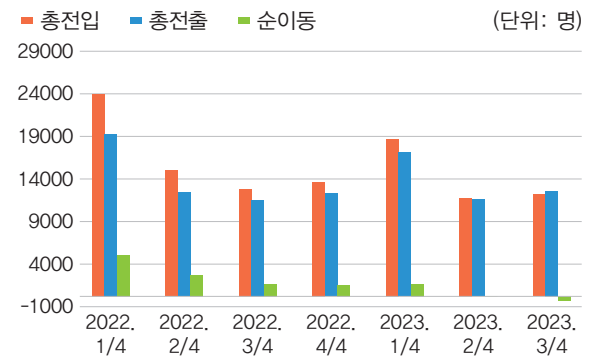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인구는 총 전입자수(12,103명), 총 전출자수(12,532명)로 429명이 순유출됨
 - 순유입된 인구는 전분기대비('23년 2분기 186명) 330.6%(429명)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동분기대비('22년 3분기 1,450명) 129.6%(1,879명)가 감소함
- 2021년 3분기 이후 세종지역으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3년 2분기부터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23년 9월 중 세종지역으로 전입한 인구는 3,665명인 반면 전출자는 이보다 68명 많은 3,733명으로 조사됨

▶ 세종지역 인구 이동 추이(월별)



▶ 세종지역 인구 이동 추이(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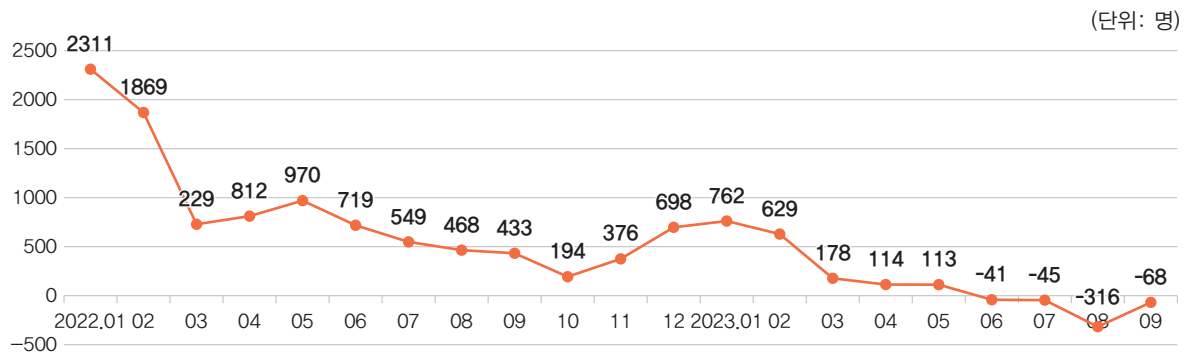


주 순이동=전입자수-전출자수(-는 순유출, 이 외는 순유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가동통계

※ 자세한 사항은 [부록16] 참조

▶ 세종지역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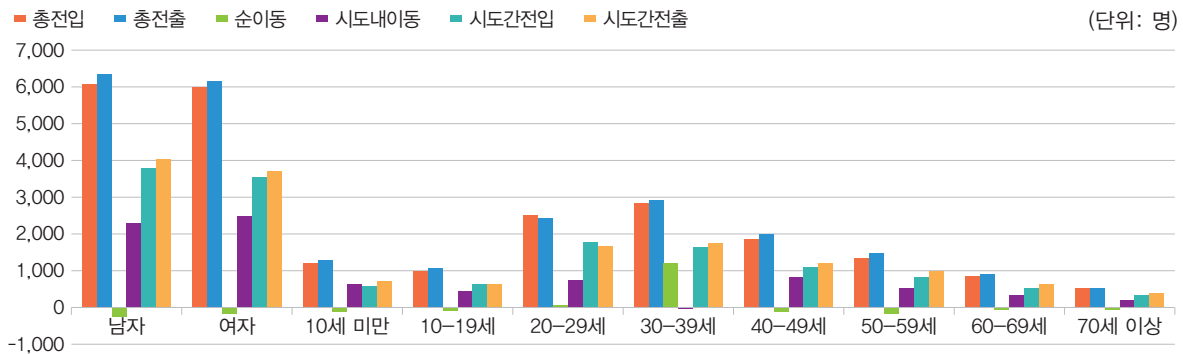


주 순이동=전입자수-전출자수(-는 순유출, 이 외는 순유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가동통계

- 2023년 3분기 성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총 순이동 인구는 -429명이며, 남자는 -267명, 여자는 -162명으로 나타남
 - 전분기대비 남자의 순이동은 934.4%가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05.2%가 감소한 수치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순이동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29세(75명)이었으며, 50~59세(-132명)의 순이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 연령층 중 20~29세(75명)만 순유입으로 나타남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성별 및 연령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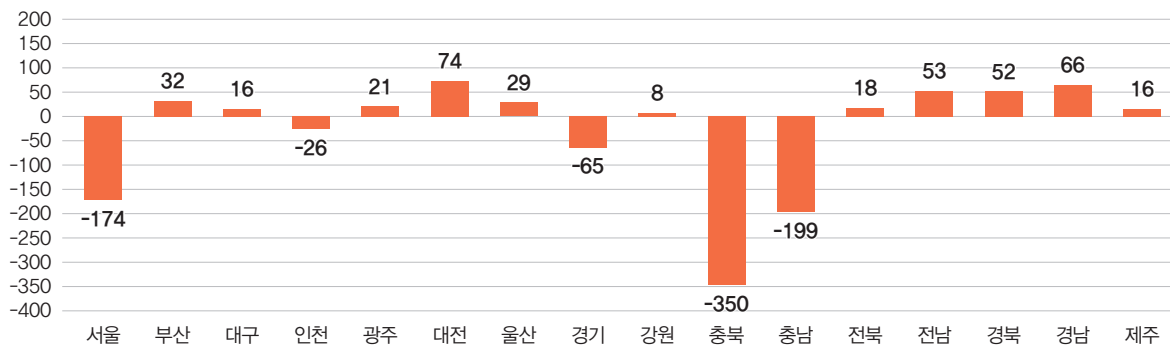
주 순이동=전입자수-전출자수(-는 순유출, 이 외는 순유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 자세한 사항은 [부록17] 참조

- 2023년 3분기 세종시 지역 간 이동 중 가장 많이 유입 및 유출된 지역은 충청권이며 그중 세종지역에서 충북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355명)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남지역(199명)으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지역으로 가장 많은 유입이 된 지역은 대전지역(74명)이었으며, 다음으로 경남지역(66명)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시도 간 전출입 현황



주 전출자)전입자의 경우 음수로 표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 자세한 사항은 [부록18] 참조

지역동향_2023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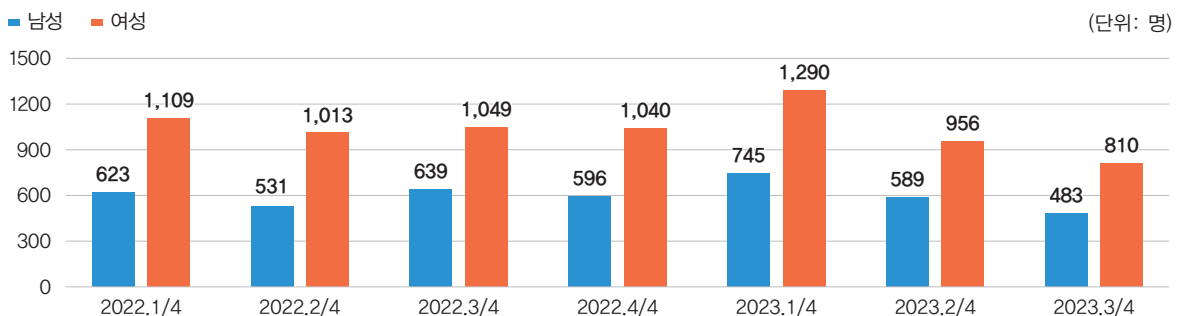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에서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95건(-23.4%) 감소한 1,293건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발급이 감소함
 - 전년동기대비 성별 발급건수를 살펴보면 남성 156건 감소한 483건, 여성 239건 감소한 810건으로 각 -24.4%, -22.8% 증감률을 나타냄
 - 전년동기대비 연령별 발급건수는 남성·여성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으며, 40~90세(-114건, -24.6%)에서 가장 많이 감소함
 - 전분기대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은 252건이 감소함('23.2분기 1,545건 → 3분기 1,29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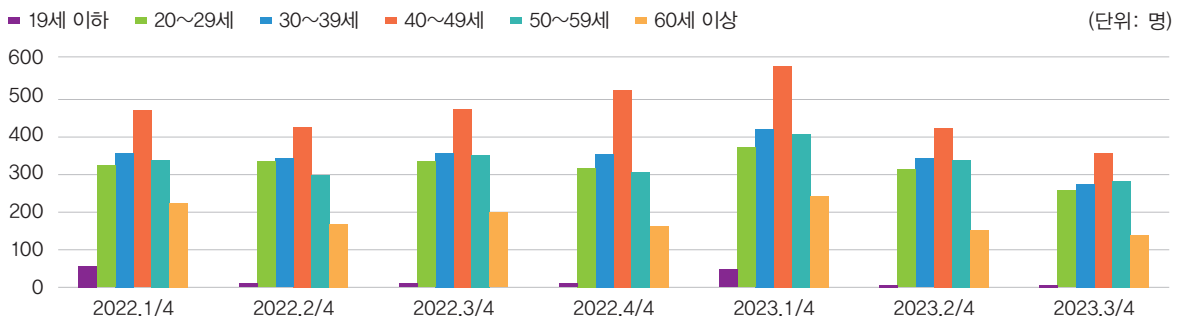
▶ 분기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성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재편집

※ 자세한 사항은 [부록19] 참조

▶ 분기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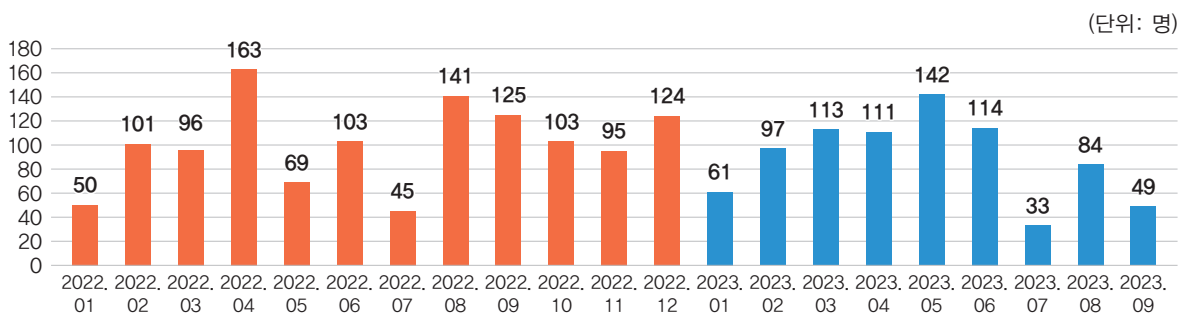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재편집

※ 자세한 사항은 [부록19] 참조

실업자훈련 현황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내 실업자훈련 실시인원은 총 16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1명 감소하여 -54.8% 증감률을 나타냄
 - 직종별 실업자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이 7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음식 서비스직' 63명, '식품가공·생산직' 13명,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6명,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명, '건설·채굴직' 3명, '보건·의료직' 0명 순으로 나타남
 - 전분기대비 동일한 '음식 서비스직'('23.2분기 63명 → 3분기 63명)을 제외하고 모든 직종에서 감소하였으며 '보건·의료직'('23.2분기 52명 → 3분기 0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 월별 세종지역 실업자훈련 실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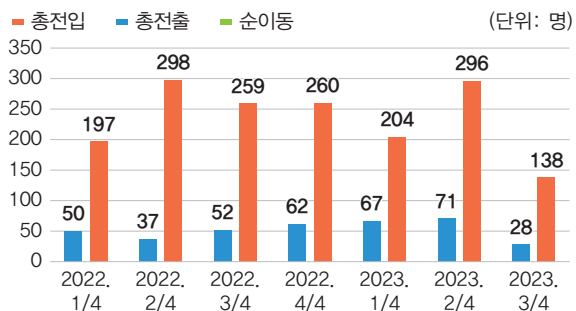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재편집

※ 자세한 사항은 [부록20] 참조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의 실업자훈련 참여자 166명 중 남성 28명, 여성 138명이 참여하여 각 16.9%, 83.1% 비중을 나타냄
 - 전년동기대비 남성(-24명)과 여성(-121명) 모두 감소하였으며, 증감률은 각 -46.2%, -46.7%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3년 3분기에는 60세 이상(50명)이 실업자훈련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50~59세(45명), 40~49세(30명) 순으로 나타남
 - 19세 이하(0명)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훈련 참여율을 보임
 - 전년동기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며, 40~49세 57명 감소하여 가장 큰 증감률 -65.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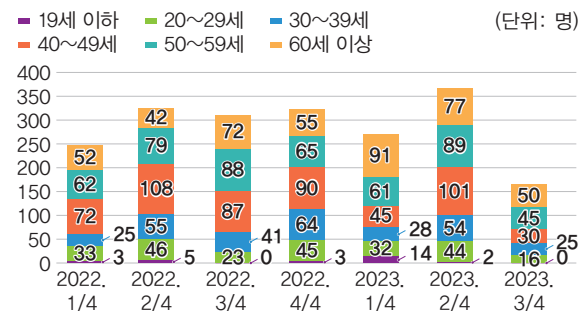
▶ 분기별 세종지역 실업자훈련 실시현황(성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 자세한 사항은 [부록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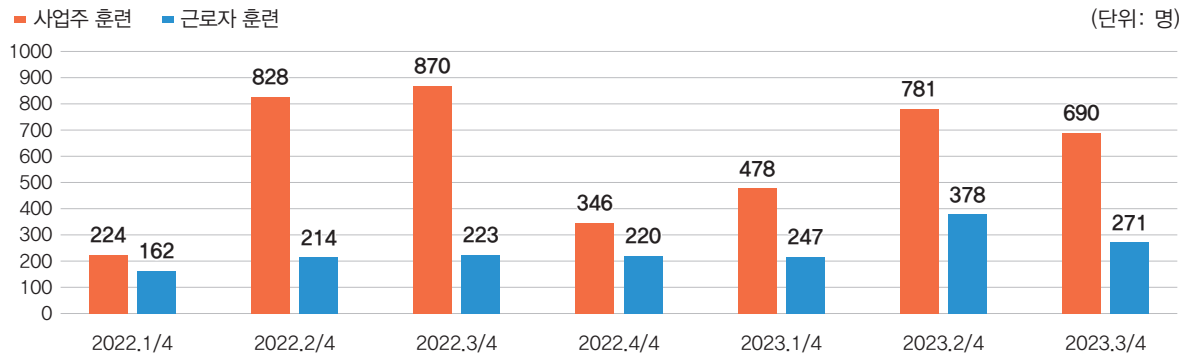
▶ 분기별 세종지역 실업자훈련 실시현황(연령별)



사업주 및 근로자훈련 현황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내 사업주훈련 실시인원은 총 69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0명 감소하여 -20.7% 증감률을 나타냄
 - ‘사업주지원금훈련’ 실시인원이 411명으로 가장 많으나, 전년동기대비 214명(-34.2%) 감소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실시인원은 전년동기대비 135명(195.7%) 증가한 204명 실시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은 101명(-57.4%) 감소함
- 2023년 3분기 세종지역 내 근로자훈련 실시인원은 총 27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8명 증가하여 21.5% 증감률을 나타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인원은 전년동기대비 53명(24.3%) 증가한 271명 실시하였으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실시인원은 0명으로 5명(-100%) 감소함

▶ 분기별 세종지역 사업주 및 근로자 훈련 실시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자세한 사항은 [부록22] 참조

부록_2023년 3분기

[부록 1]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¹⁾

(단위: 전년동기대비 %)

	〈가중치〉	2022년						2023년					
		연간	9월	1/4	2/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1,000.0〉	5.4	6.0	4.0	5.7	6.2	5.5	4.4	2.6	2.5	1.8	8월	9월
		..	(0.0)	(1.7)	(2.5)	(1.0)	(0.3)	(0.6)	(0.7)	(0.9)	(0.1)	2.5	3.2
• 상품	〈490.6〉	6.4	6.9	4.4	7.2	7.6	6.3	5.2	2.7	3.3	1.5	(0.7)	(0.7)
농축수산물	〈 75.7〉	4.5	8.7	1.7	3.7	8.0	4.7	1.8	0.9	2.8	0.9	3.6	4.8
(농산물)	〈 40.0〉	2.7	12.8	-3.1	-1.2	10.4	5.4	2.7	2.9	5.0	1.2	2.1	5.3
(축산물)	〈 26.2〉	6.7	2.9	9.3	11.2	4.8	1.8	-2.2	-5.0	-2.0	-2.4	4.4	9.1
(수산물)	〈 9.5〉	5.9	9.1	1.8	3.2	7.6	10.9	10.6	11.9	8.0	10.1	-3.3	-0.4
공업제품	〈381.1〉	6.3	5.9	5.1	7.9	6.9	5.2	4.0	1.1	1.8	-0.1	8.5	5.4
(석유류)	〈 40.6〉	22.2	16.5	22.2	36.1	24.1	7.8	-4.4	-20.4	-15.1	-26.8	2.4	3.3
전기·수도·가스	〈 33.8〉	12.3	14.2	3.2	8.1	14.9	22.8	27.6	24.3	21.0	21.6	-11.8	-5.2
• 서비스	〈509.4〉	4.4	5.0	3.7	4.3	4.9	4.8	3.6	2.5	1.7	2.2	21.6	19.6
개인서비스	〈298.7〉	4.9	6.1	3.5	4.7	5.7	5.7	4.9	3.9	3.0	3.7	1.3	1.7
공공서비스	〈114.6〉	2.1	2.1	2.0	2.1	2.2	2.2	1.1	0.9	0.9	0.9	2.3	2.9
집세	〈 96.1〉	5.5	5.3	6.1	5.8	5.3	4.8	2.9	0.2	-1.0	-0.6	0.9	1.0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내는 전기대비 상승률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부록 2]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등락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소비자물가지수	2.8	3.8	4.0	5.7	6.2	5.5	4.4	2.6	2.5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5.5	5.5	6.2	7.3	8.3	9.5	7.5	4.3	4.9
음식 및 숙박	2.6	3.2	5.4	6.8	8.5	8.1	6.8	5.5	3.7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8	4.2	3.5	5.6	8.1	6.5	5.6	4.5	3.6
의류 및 신발	0.3	1.3	2.1	2.9	3.5	5.0	6.1	7.6	8.1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2	2.2	4.0	4.4	6.1	7.8	7.1	6.6	5.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2.2	3.3	3.6	5.2	4.2	3.8	5.4	5.3	5.6
오락 및 문화	0.5	0.8	1.9	2.7	3.3	3.4	3.5	3.2	1.7
교육	0.8	0.2	0.2	1.2	1.4	1.3	2.1	2.6	1.9
보건	0.1	0.1	0.3	0.7	0.8	1.3	1.4	1.2	1.4
통신	-2.4	3.8	0.3	0.7	1.0	1.3	1.0	0.8	0.7
주류 및 담배	0.4	0.5	2.1	3.9	3.7	3.6	2.1	0.3	0.3
교통	7.5	10.6	8.7	14.0	10.6	4.7	-0.3	-7.3	-5.0
생활물가지수	2.9	4.8	4.7	7.2	7.4	5.9	4.4	1.6	2.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조사, 충청지방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2023.11.20.)

[부록 3]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성질별 등락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소비자물가지수	2.8	3.8	4.0	5.7	6.2	5.5	4.4	2.6	2.5
상품	2.6	4.3	4.4	7.2	7.6	6.3	5.2	2.7	3.3
농축수산물	3.5	4.5	1.7	3.7	8.0	4.7	1.8	0.9	2.8
농산물	0.0	0.1	-3.1	-1.2	10.4	5.4	2.7	2.9	5.0
축산물	11.2	13.3	9.3	11.2	4.8	1.8	-2.2	-5.0	-2.0
수산물	-3.4	-0.9	1.8	3.2	7.6	10.9	10.6	11.9	8.0
공업제품	2.6	4.5	5.1	7.9	6.9	5.2	4.0	1.1	1.8
가공식품	1.5	3.3	5.2	7.3	7.7	8.1	8.8	7.1	6.0
내구재	0.2	1.6	3.1	3.3	3.2	2.9	2.5	3.0	3.0
섬유제품	0.0	1.1	1.4	2.5	3.5	5.0	6.3	7.5	7.9
출판물	0.6	1.0	2.0	2.5	2.9	2.8	2.9	2.6	2.5
석유류	21.6	29.4	22.2	36.1	24.1	7.8	-4.4	-20.4	-15.1
의약품	0.7	0.7	0.6	0.2	-0.2	0.2	0.6	1.3	2.0
화장품	1.3	1.8	4.7	5.8	9.7	11.3	7.6	5.1	3.3
기타 공업제품	-0.5	0.3	1.1	3.3	3.5	4.3	5.4	4.3	4.5
전기·가스·수도	-0.2	1.0	3.2	8.1	14.9	22.8	27.6	24.3	21.0
서비스	3.0	3.4	3.7	4.3	4.9	4.8	3.6	2.5	1.7
집세	6.7	6.4	6.1	5.8	5.3	4.8	2.9	0.2	-1.0
공공서비스	1.2	3.6	2.0	2.1	2.2	2.2	1.1	0.9	0.9
개인서비스	2.5	2.4	3.5	4.7	5.7	5.7	4.9	3.9	3.0
외식	2.6	3.3	5.5	6.9	8.7	8.2	6.8	5.4	3.6
외식제외 개인서비스	2.4	1.8	2.3	3.3	3.9	4.2	3.7	2.9	2.6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비자물가조사, 충청지방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2023.11.20.)

[부록 4] 세종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2020=100, %)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누계비	상 품		서 비 스	
					지수	전년 동월비	지수	전년 동월비
가중치	1000.0				490.6		509.4	
품목수	457				306		147	
2014	—	—	—	—	—	—	—	—
2015	—	—	—	—	—	—	—	—
2016	—	—	—	—	—	—	—	—
2017	—	—	—	—	—	—	—	—
2018	—	—	—	—	—	—	—	—
2019	—	—	—	—	—	—	—	—
2020	100.00	—	—	—	100.00	—	100.00	—
2021	102.71	—	—	2.7	102.58	2.6	102.84	2.8
2022	108.23	—	—	5.4	109.11	6.4	107.38	4.4
2021. 3	102.05	0.4	2.0	1.4	102.08	1.6	102.02	2.4
4	102.33	0.3	2.7	1.7	102.13	2.7	102.53	2.7
5	102.40	0.1	3.0	2.0	102.07	3.0	102.72	3.0
6	102.48	0.1	2.8	2.1	102.02	2.4	102.91	3.1
7	102.61	0.1	2.8	2.2	101.88	2.5	103.32	3.2
8	103.11	0.5	2.9	2.3	102.59	2.7	103.61	3.0
9	103.20	0.1	2.7	2.3	103.28	2.6	103.12	2.8
10	103.55	0.3	3.5	2.5	103.82	3.0	103.29	4.0
11	104.01	0.4	4.1	2.6	104.56	5.2	103.47	3.1
12	104.16	0.1	3.9	2.7	104.46	3.9	103.86	3.1
2022. 1	104.96	0.8	3.9	3.9	104.82	4.1	105.09	3.6
2	105.45	0.5	3.8	3.8	105.53	4.1	105.37	3.5
3	106.56	1.1	4.4	4.0	107.15	5.0	105.99	3.9
4	107.43	0.8	5.0	4.3	108.35	6.1	106.54	3.9
5	108.33	0.8	5.8	4.6	109.44	7.2	107.26	4.4
6	109.04	0.7	6.4	4.9	110.45	8.3	107.69	4.6
7	109.28	0.2	6.5	5.1	110.56	8.5	108.04	4.6
8	109.36	0.1	6.1	5.2	110.00	7.2	108.74	5.0
9	109.36	0.0	6.0	5.3	110.44	6.9	108.32	5.0
10	109.82	0.4	6.1	5.4	111.26	7.2	108.44	5.0
11	109.59	-0.2	5.4	5.4	110.62	5.8	108.60	5.0
12	109.57	0.0	5.2	5.4	110.74	6.0	108.45	4.4
2023. 1	110.12	0.5	4.9	4.9	111.19	6.1	109.10	3.8
2	110.33	0.2	4.6	4.8	111.33	5.5	109.37	3.8
3	110.44	0.1	3.6	4.4	111.43	4.0	109.50	3.3
4	110.81	0.3	3.1	4.1	111.97	3.3	109.69	3.0
5	111.11	0.3	2.6	3.8	112.60	2.9	109.68	2.3
6	111.23	0.1	2.0	3.5	112.35	1.7	110.15	2.3
7	111.29	0.1	1.8	3.2	112.17	1.5	110.45	2.2
8	112.05	0.7	2.5	3.1	113.97	3.6	110.20	1.3
9	112.86	0.7	3.2	3.1	115.70	4.8	110.13	1.7

자료 충청지방통계청, 「2023년 9월 대전·세종·충청지역 소비자물가동향」(2023.10.5.)

[부록 5] 세종지역 금융기관¹⁾²⁾ 수신

(기간 중 잔액증감, 억원, %)

	2022년			2023년							
	9월	12월	연중	7월 ⁴⁾	8월	9월	1/4	2/4	3/4	9월말 잔액	
수신	-12,203	-51,682	8,421	-29,830	-28,961	-4,840	25,974	12,958	-63,631	260,606	(3.7)
예금은행	-768	-8,938	8,080	-8,245	-8,245	3,920	20,876	-1,589	-12,570	155,119	(-3.3)
요구불예금	447	-1,596	-1,803	-918	-918	-893	354	2,218	-2729	13,782	(-17.6)
저축성예금	-1,437	-7,333	9,883	-7,452	-7,452	4,827	20,648	-3,850	-10,077	139,372	(-1.6)
시장성수신	221	-9	0	125	125	-13	-126	41	237	1,965	(-3.3)
비은행금융기관	-11,435	-42,744	341	-21,585	-20,716	-8,760	5,098	14,547	-51,061	105,487	(15.8)
자산운용사	-257	-332	-152	-4	-4	-188	210	114	-196	2,306	(6.1)
신탁회사	-12,237	-43,232	-7,112	-20,309	-20,309	-8,237	2,718	15,680	-48,855	36,668	(50.6)
상호저축은행	0	0	0	0	0	0	0	0	0	0	
신용협동조합	726	13	2,054	-61	-61	-98	337	-188	-220	15,427	(-1.9)
상호금융 ³⁾	-105	360	2,925	-421	-421	-447	804	-205	-1,289	38,545	(5.9)
새마을금고	263	191	2,542	-635	234	82	297	-601	-319	9,588	(-4.6)
우체국예금	174	255	84	-155	-155	127	733	-253	-183	2,953	(25.2)

주 1)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2)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잔액증감률(%)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부문

4)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년 8월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23.10.24.)」 발체

자료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년 9월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23.11.22.)」

[부록 6] 세종지역 금융기관¹⁾²⁾ 여신

(기간 중 잔액증감, 억원, %)

		2022년			2023년							
		9월	12월	연중	7월 ⁴⁾	8월	9월	1/4	2/4	3/4	9월말 잔액	
여 신		1,007	-80	9,015	384	889	418	-494	2,342	1,691	168,132	(3.1)
예금은행		149	-302	2,398	388	889	598	-353	2,235	1,875	111,536	(4.2)
차입 주체별	(기업대출)	283	-143	3,125	99	317	230	631	1,745	646	39,631	(8.7)
	[대기업대출]	-18	-47	-337	-126	-10	54	50	227	-82	501	(109.2)
	[중소기업대출]	302	-96	3,462	225	328	176	580	1,519	729	39,130	(8.0)
	(가계대출)	-89	-167	-376	291	648	375	-915	500	1,314	71,292	(2.6)
	[주택담보대출]	157	99	1,896	399	727	564	65	713	1,690	55,832	(7.1)
	(공공및기타대출)	-45	8	-351	-2	-76	-7	-69	-10	-85	613	(-43.7)
자금별	금융자금	189	-249	2,067	356	770	564	-332	1,943	1,690	108,964	(3.9)
	재정자금	-40	-53	331	32	120	34	-21	292	186	2,573	(19.1)
용도별	운전자금	137	-95	2,012	263	894	509	-543	1,636	1,666	88,949	(5.0)
	시설자금	12	-207	386	125	-5	89	190	600	209	22,587	(1.1)
비은행금융기관		858	222	6,617	-4	-0	-180	-141	106	-184	56,596	(1.0)
차입 주체별	(기업대출)	805	292	6,252	199	-7	-46	825	383	146	27,085	(9.0)
	[대기업대출]	136	0	165	0	0	0	-1	8	0	171	
	[중소기업대출]	670	292	6,087	199	-7	-46	826	376	146	26,914	(9.0)
	(가계대출)	-128	-87	-871	-148	-97	-152	-527	-426	-397	14,686	(-9.9)
	[주택담보대출]	-27	-44	105	-47	-41	-19	-55	-252	-107	3,088	(-13.1)
	(공공및기타대출)	180	17	1,235	-55	104	18	-439	149	67	14,824	(-0.4)
금융 기관별	(신탁회사)	2	2	19	-1	3	0	-6	2	2	38	(25.4)
	(상호저축은행)	0	0	0	0	0	0	0	0	0	0	
	(신용협동조합)	238	107	1,549	65	-135	50	234	-325	-20	13,599	(0.4)
	(상호금융 ³⁾)	413	52	2,985	-55	211	-90	-428	511	66	34,306	(1.5)
	(새마을금고)	206	61	2,063	-12	-82	-141	59	-82	-235	8,625	(0.2)

주 1)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2) ()내는 전년동월말대비 잔액증감률(%)

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부문

4)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년 8월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23.10.24.)」 발췌

자료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년 9월중 대전세종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23.11.22.)」

[부록 7] 세종지역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대비, % 백만달러)

		2022년						2023년					
		연간	8월	1/4	2/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 수출	〈비중 ¹⁾ 〉	5.7	6.4	15.2	21.1	5.6	-15.5	-34.4	-31.7	-23.2	-23.1	-20.8	-25.5
수출액(A)		1,620	148	417	438	409	355	274	299	314	100	104	110
인쇄회로	〈23.7〉	-0.8	29.1	21.0	6.2	15.8	-38.6	-61.8	-48.5	-39.7	-46.2	-34.7	-38.2
석유화학제품	〈6.9〉	-16.6	-42.2	8.3	-10.0	-35.3	-28.1	-51.3	-49.6	-10.2	-20.7	1.2	-9.0
플라스틱제품	〈5.7〉	6.3	39.6	5.5	17.0	28.2	-25.7	-84.8	-82.6	-85.7	-87.1	-82.9	-87.0
자동차및자동차부품	〈4.0〉	-0.5	-18.6	-6.9	-19.5	-2.5	33.2	-3.2	-8.4	-6.4	-19.5	9.8	-6.8
• 수입	〈100.0〉	26.6	36.9	15.2	25.4	26.4	40.0	-8.1	-4.9	-19.5	-29.1	-4.1	-22.3
— 쌀 ²⁾ 제외	〈73.5〉	33.0	37.3	24.5	48.6	27.6	31.0	13.3	-1.2	-5.2	-4.5	-0.3	-9.8
수입액(B)		1,697	149	380	447	425	445	349	425	342	109	117	116
쌀 ²⁾	〈26.5〉	11.7	36.0	-6.0	-18.3	23.6	69.4	-72.1	-17.4	-53.2	-74.6	-14.8	-55.5
정밀화학원료	〈6.5〉	-3.5	-35.1	48.3	45.1	-22.3	-42.2	-40.2	-33.2	-10.2	34.4	-54.5	25.9
펄프	〈3.0〉	11.9	55.5	0.1	44.7	11.8	-3.9	-0.0	43.0	13.6	16.5	2.6	19.5
반도체	〈2.9〉	-5.4	2.7	-19.9	-22.7	1.7	25.6	27.1	43.2	47.9	93.0	44.9	21.7
평판디스플레이	〈2.2〉	-41.3	-40.8	-54.9	-47.3	-46.9	-2.2	19.3	50.2	33.8	81.6	30.5	9.0
• 수출입차(A-B)		-77	-1	37	-9	-16	-90	-75	-126	-28	-9	-13	-6

주 1) 〈 〉 내는 2022년중 해당 품목의 수출(입)액이 전체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 물량을 설정하여 수입을 관리하며, 우리나라 쌀 수입액은 모두 세종지역의 수입으로 계상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2023.11.13.)

[부록 8] 세종지역 최근 3년 월별 수출입 동향

(단위: 달러, 전년동기대비 %)

순번	연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1	2023. 09	109,958,074	-25.5	115,767,556	-22.3	-5,809,482
2	08	103,820,748	-20.8	117,392,916	-4.1	-13,572,168
3	07	100,398,921	-23.1	108,956,847	-29.1	-8,557,926
4	06	103,083,912	-30.9	145,918,596	-5.0	-42,834,684
5	05	99,604,487	-33.6	154,289,801	-11.3	-54,685,314
6	04	96,505,075	-30.6	124,877,374	4.4	-28,372,299
7	03	97,446,315	-35.9	119,730,344	-21.7	-22,284,029
8	02	78,069,695	-39.5	100,211,899	12.5	-22,142,204
9	01	98,211,421	-27.8	124,285,571	-9.9	-26,074,150
10	2022. 12	103,222,768	-25.8	163,156,562	13.2	-59,933,794
11	11	114,704,613	-16.3	108,871,329	17.3	5,833,284
12	10	137,540,997	-4.8	172,520,052	113.9	-34,979,055
13	09	147,562,821	6.4	148,930,075	36.9	-1,367,254
14	08	131,107,086	11.8	122,449,268	16.7	8,657,818
15	07	130,528,638	-0.9	153,648,609	25.2	-23,119,971
16	06	149,195,053	26.1	153,640,063	51.6	-4,445,010
17	05	149,953,301	18.9	173,985,342	25.2	-24,032,041
18	04	139,124,886	18.5	119,667,522	2.8	19,457,364
19	03	152,033,878	17.0	152,848,863	44.4	-814,985
20	02	129,054,839	20.3	89,116,122	24.3	39,938,717
21	01	135,979,169	8.9	137,891,662	-9.5	-1,912,493
22	2021. 12	139,140,579	12.5	144,076,487	15.5	-4,935,908
23	11	137,073,610	0.1	92,806,545	8.6	44,267,065
24	10	144,507,293	29.8	80,651,918	-4.4	63,855,375
25	09	138,662,358	29.8	108,754,900	16.8	29,907,458
26	08	117,296,872	7.1	104,913,931	57.9	12,382,941
27	07	131,722,523	12.8	122,707,257	3.5	9,015,266
28	06	118,302,470	19.5	101,339,699	-16.0	16,962,771
29	05	126,081,937	50.0	138,953,031	61.6	-12,871,094
30	04	117,388,603	26.7	116,372,056	15.7	1,016,547
31	03	129,995,825	20.5	105,853,087	11.4	24,142,738
32	02	107,309,507	-1.9	71,671,990	-2.4	35,637,517
33	01	124,849,845	22.0	152,308,634	12.2	-27,458,789
34	2020. 12	123,649,254	4.3	124,781,154	9.4	-1,131,900
35	11	136,953,110	22.0	85,476,765	38.6	51,476,345
36	10	111,370,137	-12.0	84,360,113	26.4	27,010,024
37	09	106,827,018	-5.8	93,137,085	50.4	13,689,933
38	08	109,557,139	-1.0	66,451,067	-9.0	43,106,072
39	07	116,741,843	-4.5	118,512,346	32.0	-1,770,503
40	06	98,983,066	5.1	120,693,311	53.0	-21,710,245
41	05	84,030,854	-14.0	86,007,536	-85.0	-1,976,682
42	04	92,669,456	0.2	100,590,017	4.4	-7,920,561

주 최근 수치는 추후 최종값으로 수정될 수 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023년 9월 대전세종충남 수출입 동향」 (2023. 10. 23.)

[부록 9] 전국 지자체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

순위	구분	2022년9월			2023년9월			2022년전체			2023년누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경기	11,651	-2.1	20.38	11,923	2.3	21.81	137,419	-0.3	20.10	20,10	-13.2	19.88
2	울산	7,218	18.1	12.62	7,587	5.1	13.88	90,093	21.3	13.18	63,849	-5.9	13.75
3	충남	9,351	-7.0	16.36	6,846	-26.8	12.52	107,495	3.2	15.73	57,956	-31.3	12.48
4	서울	5,634	-3.0	9.85	5,573	-1.1	10.19	66,906	-2.4	9.79	49,983	-3.0	10.77
5	인천	4,861	16.4	8.50	4,599	-5.4	8.41	54,270	18.1	7.94	39,543	-3.4	8.52
6	경북	3,686	-3.8	6.45	4,041	9.6	7.39	46,879	5.9	6.86	35,291	-0.3	7.60
7	전남	4,001	8.2	7.00	3,751	-6.3	6.86	49,435	15.5	7.23	28,772	-25.4	6.20
8	경남	2,547	-18.1	4.46	3,132	22.9	5.73	36,432	-11.7	5.33	29,780	9.9	6.41
9	충북	3,120	22.1	5.46	2,376	-23.9	4.35	32,411	12.7	4.74	21,333	-15.5	4.59
10	광주	1,411	12.2	2.47	1,496	6.0	2.74	17,946	8.1	2.63	13,683	0.7	2.95
11	부산	1,424	7.4	2.49	1,248	-12.4	2.28	16,190	9.3	2.37	11,452	-7.1	2.47
12	대구	900	42.4	1.57	865	-3.9	1.58	10,641	34.1	1.56	8,576	9.9	1.85
13	전북	656	2.8	1.15	561	-14.5	1.03	8,219	5.1	1.20	5,535	-12.9	1.19
14	대전	329	-18.8	0.58	312	-5.1	0.57	4,684	-5.4	0.69	3,148	-13.9	0.68
15	강원	224	-10.1	0.39	227	1.4	0.42	2,749	0.7	0.40	2,048	-3.4	0.44
16	세종	148	6.4	0.26	110	-25.5	0.20	1,620	5.7	0.24	887	-29.8	0.19
17	제주	14	-26.1	0.02	15	9.9	0.03	195	-13.9	0.03	127	-10.6	0.03
총계		57,176	2.3	100.00	54,660	-4.4	100.00	683,585	6.1	100.00	464,278	-11.5	100.00

주 순위는 2023년 9월 당월 금액 순위며, 금액은 십만 달러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023년 9월 대전세종충남 수출입 동향」 (2023. 10. 23.)

[부록 10] 전국 지자체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

순위	구분	2022년9월			2023년9월			2022년전체			2023년누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서울	17,436	9.3	28.58	16,685	-4.3	32.74	213,849	13.0	29.24	149,468	-7.8	30.88
2	경기	13,988	9.6	22.93	11,517	-17.7	22.60	177,970	9.6	24.33	116,238	-12.4	24.02
3	인천	5,703	26.7	9.35	4,908	-13.9	9.63	68,296	27.8	9.34	44,756	-13.8	9.25
4	울산	4,506	28.9	7.39	3,935	-12.7	7.72	52,180	28.2	7.13	33,496	-17.1	6.92
5	전남	4,014	23.4	6.58	3,387	-15.6	6.65	49,752	35.0	6.80	30,347	-20.0	6.27
6	충남	3,831	19.7	6.28	3,016	-21.3	5.92	50,849	36.5	6.95	30,272	-22.6	6.25
7	경남	3,434	93.6	5.63	1,899	-44.7	3.73	31,152	43.9	4.26	19,756	-13.2	4.08
8	경북	1,616	-5.2	2.65	1,653	2.3	3.24	21,646	11.9	2.96	16,277	-5.1	3.36
9	부산	1,291	-0.8	2.12	1,131	-12.4	2.22	16,817	9.3	2.30	11,539	-9.6	2.38
10	충북	936	-10.2	1.53	566	-39.5	1.11	10,164	6.8	1.39	6,299	-20.4	1.30
11	대구	683	60.8	1.12	558	-18.3	1.10	8,115	54.9	1.11	6,723	14.9	1.39
12	광주	979	43.0	1.60	528	-46.1	1.04	9,714	20.7	1.33	5,631	-24.7	1.16
13	전북	483	-6.3	0.79	454	-5.9	0.89	6,498	6.5	0.89	4,270	-14.3	0.88
14	강원	1,537	165.9	2.52	293	-81.0	0.57	7,704	78.4	1.05	4,184	-26.3	0.86
15	대전	386	25.7	0.63	286	-25.9	0.56	4,473	17.3	0.61	3,272	-3.4	0.68
16	세종	149	36.9	0.24	116	-22.3	0.23	1,697	26.6	0.23	1,111	-11.2	0.23
17	제주	40	26.1	0.07	32	-20.1	0.06	493	17.9	0.07	326	-14.9	0.07
총계		61,013	18.2	100.00	50,963	-16.5	100.00	731,370	18.9	100.00	483,965	-12.6	100.00

주 순위는 23년 9월 당월 금액 순위이며, 금액은 십만 달러 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023년 9월 대전세종충남 수출입 동향」 (2023. 10. 23.)

[부록 11] 세종지역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22		2023					전년동월대비		
		9월	3/4	7월	8월	9월	1/4	2/4	3/4	증감	증감률
〈 15세 이상 인구 〉		313	312	323	323	323	319	322	323	10	3.2
남자		156	155	160	160	160	158	160	160	5	3.0
여자		158	157	163	163	163	161	162	163	5	3.4
▶ 경제활동인구		205	205	216	215	214	208	217	215	9	4.3
참가율		65.4	65.8	66.9	66.6	66.1	65.0	67.3	66.6	0.7	－
성 별	•남자	121	122	123	123	122	121	124	123	1	1.0
	참가율	77.7	78.4	77.0	76.7	76.2	76.1	77.8	76.6	－1.5	－
	•여자	84	84	93	93	92	87	93	92	8	9.3
	참가율	53.3	53.4	57.0	56.8	56.3	54.0	57.0	56.7	3.0	－
	▶ 비경제활동인구	108	107	107	108	110	112	105	108	1	1.0
남자		35	33	37	38	38	38	36	38	3	9.8
여자		74	73	70	70	71	74	70	71	－2	－3.1
〈 취업자 〉		202	201	211	212	210	203	212	211	9	4.3
성 별	•남자	119	119	121	121	121	119	122	121	2	2.0
	•여자	83	83	90	91	89	84	90	90	6	7.5
	•15－19세	1	1	0	1	1	1	1	1	0	－40.0
	•20－29세	21	22	22	21	21	21	22	21	0	－1.0
	•30－39세	50	49	51	51	51	50	51	51	1	2.0
	•40－49세	62	62	63	64	63	62	64	63	1	1.8
	•50－59세	40	40	42	43	43	41	41	43	3	7.8
	•60세 이상	29	28	33	33	33	27	32	33	4	14.4
〈 고용률 〉		64.3	64.6	65.2	65.5	65.0	63.5	65.7	65.2	0.7	－
남자		76.2	76.8	75.2	75.5	75.5	75.1	76.3	75.5	－0.7	－
여자		52.6	52.5	55.4	55.6	54.6	52.0	55.2	55.2	2.0	－
(15∼64세 고용률)		(67.6)	(68.0)	(68.0)	(68.5)	(67.9)	(67.2)	(68.6)	(68.1)	(0.3)	－
〈 교육정도별 취업자 〉		202	201	211	212	210	203	212	211	9	4.3
•초졸이하		9	9	10	9	8	8	9	9	－1	－12.0
•중졸		7	7	7	8	7	6	8	7	1	12.3
•고졸		44	44	47	47	47	44	46	47	3	7.7
•대졸이상		142	141	148	148	148	144	148	148	6	3.9
－ 전문대졸		20	20	23	23	23	21	23	23	3	16.6
－ 대학교졸이상		122	121	125	125	124	123	125	125	2	1.9
〈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		202	201	211	212	210	203	212	211	9	4.3
산 업 별	•농림어업 ¹⁾	8	8	8	9	8	6	9	8	0	0.0
	•광업제조업	29	29	30	30	31	29	30	30	1	4.5
	－ 제조업	29	29	30	30	31	29	30	30	1	4.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4	164	173	173	171	169	173	172	7	4.5
	－ 건설업	11	10	9	9	9	9	9	9	－2	－15.1
	－ 도소매·숙박음식업	25	25	24	24	23	24	25	24	－2	－7.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9	110	123	123	121	117	121	123	13	11.5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9	19	17	17	18	19	19	17	－2	－7.8

		2022		2023						전년동월대비	
		9월	3/4	7월	8월	9월	1/4	2/4	3/4	증감	증감률
직 업 별	• 관리자·전문가	65	64	68	68	68	63	66	68	3	4.8
	• 사무종사자	51	51	54	55	55	53	54	55	4	8.1
	• 서비스·판매 종사자	34	35	36	35	34	36	38	35	1	2.1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	9	8	8	8	6	9	8	-1	-8.74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3	43	45	45	45	45	46	45	1	3.2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202	201	211	212	210	203	212	211	9	4.3
▶ 비임금근로자		38	37	39	38	37	36	39	38	0	-0.8
- 자영업자		32	31	34	34	33	32	34	34	1	2.5
- 무급가족종사자		5	5	5	4	4	4	5	4	-1	-21.6
▶ 임금근로자		164	165	172	173	173	167	173	173	9	5.5
- 상용		143	142	151	150	150	147	150	150	7	4.7
- 임시		19	21	18	21	20	17	19	20	1	7.5
- 일용		2	3	3	3	3	3	3	3	1	37.5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²⁾		202	201	211	212	210	203	212	211	9	4.3
▶ 36시간 미만		121	86	45	125	50	43	43	73	-71	-59.0
- 1~17시간		14	15	13	14	12	11	11	13	-3	-20.1
- 18~35시간		106	71	32	110	38	33	33	60	-68	-64.2
▶ 36시간 이상		72	106	158	78	155	151	161	130	82	113.7
- 36~52시간		60	89	138	63	135	134	140	112	75	124.4
- 53시간 이상		12	16	20	14	19	17	20	18	7	61.2
▶ 일시휴직		8	9	8	9	6	8	7	8	-2	-28.9
▶ 평균 취업시간		33.0	35.3	38.3	32.9	38.4	38.2	38.9	36.5	5.4	16.4
〈 실업자 〉		3	4	5	4	4	5	5	4	0	5.9
남자		2	3	3	2	1	2	2	2	-1	-56.5
여자		1	1	3	2	3	3	3	2	2	136.4
〈 실업률 〉		1.7	1.9	2.5	1.7	1.7	2.3	2.4	2.0	0.0	-
남자		1.9	2.2	2.3	1.4	0.8	1.3	1.9	1.5	-1.1	-
여자		1.3	1.4	2.8	2.2	2.8	3.7	3.1	2.6	1.5	-

주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상대표준오차가 클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함

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충청지방통계청

[부록 12] 세종지역 산업별 사업장 성립 및 소멸 현황

(단위: 개)

산업(대분류)		2023.7월	2023.8월	2023.9월
[전체]	사업장수	16,050	16,229	16,902
	신규성립	909	949	729
	소멸	806	805	112
A. 농업, 임업 및 어업	사업장수	80	78	78
	신규성립	1	0	0
	소멸	0	1	0
B. 광업	사업장수	4	4	4
	신규성립	0	0	0
	소멸	0	0	0
C. 제조업	사업장수	1,267	1,281	1,288
	신규성립	13	13	9
	소멸	5	4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사업장수	12	12	12
	신규성립	0	0	0
	소멸	0	0	0
E.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사업장수	62	62	64
	신규성립	1	1	3
	소멸	0	1	0
F. 건설업	사업장수	4,105	4,186	4,764
	신규성립	746	787	583
	소멸	761	741	47
G.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장수	2,153	2,161	2,176
	신규성립	33	18	24
	소멸	6	10	13
H. 운수 및 창고업	사업장수	308	308	313
	신규성립	4	2	4
	소멸	3	1	0
I.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장수	2,754	2,789	2,817
	신규성립	50	59	49
	소멸	26	23	21
J. 정보통신업	사업장수	370	371	377
	신규성립	8	5	7
	소멸	0	3	3
K.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장수	43	44	45
	신규성립	0	1	1
	소멸	0	0	0

산업(대분류)		2023.7월	2023.8월	2023.9월
[전체]	사업장수	16,050	16,229	16,902
	신규성립	909	949	729
	소멸	806	805	112
L. 부동산업	사업장수	822	827	831
	신규성립	14	8	7
	소멸	1	2	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장수	720	726	729
	신규성립	6	6	7
	소멸	1	0	5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장수	543	553	559
	신규성립	8	16	6
	소멸	1	6	2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업장수	89	89	89
	신규성립	0	0	0
	소멸	0	0	0
P. 교육 서비스업	사업장수	889	903	907
	신규성립	12	17	6
	소멸	0	2	3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수	1,025	1,029	1,030
	신규성립	4	10	5
	소멸	2	6	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장수	310	313	319
	신규성립	4	4	8
	소멸	0	2	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장수	494	493	500
	신규성립	5	2	10
	소멸	0	3	5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사업장수	0	0	0
	신규성립	0	0	0
	소멸	0	0	0
U. 국제 및 외국기관	사업장수	0	0	0
	신규성립	0	0	0
	소멸	0	0	0

※ 분류불능은 표기하지 않아 각 셀의 합이 전체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현황 (2023. 7월~9월)

[부록 13] 세종지역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현황

(단위: 개, 명)

연도/월	사업장수	피보험자수
2012	4,632	30,595
2013	5,827	35,990
2014	7,656	40,990
2015	9,905	45,812
2016	9,775	47,778
2017	10,808	51,072
2018	12,019	57,311
2019	11,070	62,176
2020	12,290	67,124
2021	16,750	73,081
2022	15,304	76,214
2019.1	11,521	57,627
2	10,384	58,210
3	10,672	59,217
4	11,046	60,371
5	11,093	60,248
6	10,933	60,596
7	11,122	60,588
8	11,289	61,196
9	11,031	61,249
10	11,059	61,706
11	11,489	62,755
12	11,070	62,176
2020.1	10,972	61,536
2	11,337	61,774
3	11,740	62,021
4	11,728	62,600
5	11,724	63,396
6	11,876	64,511
7	12,258	65,335
8	12,535	66,115
9	12,486	66,834
10	12,409	67,173
11	12,626	68,047
12	12,290	67,124
2021.1	12,906	66,437
2	13,541	67,328
3	14,144	68,537
4	14,110	69,246

연도/월	사업장수	피보험자수
5	14,299	69,945
6	14,625	70,389
7	14,823	71,174
8	14,114	71,620
9	14,568	72,181
10	15,376	73,646
11	16,296	74,336
12	16,750	73,081
2022.1	13,583	72,559
2	13,858	73,717
3	14,168	73,908
4	14,463	74,455
5	14,600	75,219
6	14,886	75,555
7	15,053	75,621
8	15,499	75,987
9	15,203	76,034
10	15,856	76,490
11	15,594	76,723
12	15,304	76,214
2023.1	15,895	75,694
2	14,810	76,999
3	15,740	77,756
4	16,074	78,627
5	16,252	79,389
6	15,903	80,001
7	16,050	79,952
8	16,229	80,655
9	16,902	80,971

※ 피보험자 통계는 상시근로자 (임금근로자+자영업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순수한 과거 피보험자 자료는 이중취득자가 중복된 사례가 있었으나, '10.1월부터 이중취득의 경우 1건으로만 집계한 것을 의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9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2023. 10. 25.)

[부록 14] 세종지역 산업별 피보험자 현황

(단위: 명)

산업(대분류)		2023.7월	2023.8월	2023.9월
[전체]	계	79,952	80,655	80,971
	남	41,999	42,384	42,563
	여	37,953	38,271	38,408
A. 농업, 임업 및 어업	계	220	216	216
	남	164	164	163
	여	56	52	53
B. 광업	계	22	23	24
	남	20	21	22
	여	2	2	2
C. 제조업	계	20,724	20,933	21,141
	남	15,409	15,589	15,756
	여	5,315	5,344	5,38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계	1,046	1,057	1,060
	남	880	888	892
	여	166	169	168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계	479	471	465
	남	395	389	384
	여	84	82	81
F. 건설업	계	3,692	3,693	3,690
	남	2,946	2,955	2,953
	여	746	738	737
G. 도매 및 소매업	계	3,915	3,931	3,998
	남	2,180	2,191	2,220
	여	1,735	1,740	1,778
H. 운수업 및 창고업	계	2,149	2,164	2,208
	남	1,799	1,814	1,850
	여	350	350	358
I. 숙박 및 음식점업	계	4,174	4,186	4,148
	남	1,533	1,547	1,555
	여	2,641	2,639	2,593
J. 정보통신업	계	1,499	1,541	1,561
	남	980	1,021	1,036
	여	519	520	525
K. 금융 및 보험업	계	879	884	884
	남	481	486	486
	여	398	398	398

산업(대분류)		2023.7월	2023.8월	2023.9월
[전체]	계	79,952	80,655	80,971
	남	41,999	42,384	42,563
	여	37,953	38,271	38,408
L. 부동산업	계	2,485	2,472	2,476
	남	1,603	1,600	1,609
	여	882	872	86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계	8,725	8,824	9,171
	남	4,761	4,782	4,929
	여	3,964	4,042	4,24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계	3,519	3,507	3,510
	남	1,862	1,857	1,863
	여	1,657	1,650	1,64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계	8,185	8,285	8,202
	남	3,151	3,197	3,065
	여	5,034	5,088	5,137
P. 교육 서비스업	계	4,027	4,136	4,052
	남	1,144	1,170	1,171
	여	2,883	2,966	2,881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계	11,164	11,257	11,347
	남	1,222	1,226	1,236
	여	9,942	10,031	10,11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계	690	694	730
	남	365	371	385
	여	325	323	34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계	2,358	2,381	2,088
	남	1,104	1,116	988
	여	1,254	1,265	1,100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계	0	0	0
	남	0	0	0
	여	0	0	0
U. 국제 및 외국기관	계	0	0	0
	남	0	0	0
	여	0	0	0

※ 분류불능은 표기하지 않아 각 셀의 합이 전체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피보험자 통계는 (임금근로자+자영업자)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현황(2023.7월~9월)

[부록 15] 세종지역 구인구직 현황

(단위: 명)

직종	1/4		2/4		3/4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구인 인원	전년동분기 대비	구인 인원	전년동분기 대비
〈전 체〉	1,427	9,331	1,389	9,044	1,182	-335	8,565	606
관리직(임원·부서장)	30	263	17	258	18	-7	258	27
경영·행정·사무직	144	2,217	187	2,062	138	-28	1,989	46
금융·보험직	1	91	1	83	0	-2	72	-6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	38	4	40	3	0	29	-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	54	0	54	3	0	47	19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2	275	16	263	12	-6	266	55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6	150	63	145	49	-34	155	54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50	317	49	318	35	0	324	84
교육직	23	393	21	430	23	-13	353	11
법률직	1	38	2	33	1	-1	28	-2
사회복지·종교직	70	708	57	739	45	-2	589	-48
경찰·소방·교도직	0	8	0	15	0	0	17	10
군인	0	9	0	7	0	0	7	1
보건·의료직	56	647	42	588	51	3	586	78
예술·디자인·방송직	15	400	29	367	17	-3	350	5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14	44	11	42	10	-7	49	17
미용·예식 서비스직	4	133	5	146	4	2	135	2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	43	2	36	1	-2	26	-7
음식 서비스직	54	536	92	517	55	-38	488	-27
경호·경비직	5	263	5	237	4	0	219	-12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73	368	69	371	66	-21	334	43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2	424	78	429	79	13	394	50
영업·판매직	32	315	32	315	25	-2	324	16
운전·운송직	66	245	51	242	39	-41	240	3
건설·채굴직	32	297	22	293	8	-24	332	107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69	159	53	179	45	-4	180	23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50	53	36	44	27	-16	40	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51	257	60	242	49	-3	228	9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6	28	5	26	5	2	25	9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79	50	72	54	88	-14	45	6
섬유·의복 생산직	1	3	3	11	0	-2	10	-1
식품가공·생산직	20	110	13	90	12	-6	84	-3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 정비·생산직	10	68	15	58	10	-6	57	2
제조 단순직	291	264	267	260	246	-70	226	-37
농림어업직	16	63	13	50	11	-5	59	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부록 16] 세종지역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연간	1/4	2/4	3/4	4/4	7월	8월	9월	1/4	2/4	3/4
총전입	65,529	24,199	14,984	12,758	13,588	4,184	4,254	3,665	18,561	11,665	12,103
총전출	55,401	19,290	12,483	11,308	12,320	4,229	4,570	3,733	16,992	11,479	12,532
순이동	10,128	4,909	2,501	1,450	1,268	-45	-316	-68	1,569	186	-429
시도내이동	25,292	9,360	6,009	4,694	5,229	1,673	1,592	1,514	6,454	4,635	4,779
시도간전입	40,237	14,839	8,975	8,064	8,359	2,511	2,662	2,151	12,107	7,030	7,324
시도간전출	30,109	9,930	6,474	6,614	7,091	2,556	2,978	2,219	10,538	6,844	7,753

주 순이동 = 전입자수 - 전출자수(- 는 순유출, 이외는 순유입)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부록 17] 세종지역 성별 및 연령별 인구이동

(단위: 명, %)

구분	2023.3/4						전분기대비 증감률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¹⁾	시도내 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¹⁾	시도내 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전체]	12,103	12,532	-429	4,779	7,324	7,753	3.8	9.2	-330.6	3.1	4.2	13.3
남자	6,108	6,375	-267	2,314	3,794	4,061	3.7	8.8	-934.4	1.5	5.0	13.4
여자	5,995	6,157	-162	2,465	3,530	3,692	3.8	9.6	-205.2	4.7	3.3	13.1
10세 미만	1,174	1,265	-91	599	575	666	21.3%	30.8%	-9200%	24.8%	17.8%	36.8%
10-19세	1,020	1,045	-25	436	584	609	31.6%	25.8%	-55.4%	12.4%	50.9%	37.5%
20-29세	2,481	2,406	75	717	1,764	1,689	6.7%	3.8%	837.5%	3.8%	8.0%	3.9%
30-39세	2,831	2,896	-65	1,184	1,647	1,712	-1.2%	8.4%	-133.3%	1.6%	-3.2%	13.7%
40-49세	1,896	1,995	-99	811	1,085	1,184	3.8%	11.5%	-367.6%	1.9%	5.3%	19.2%
50-59세	1,354	1,486	-132	525	829	961	-8.0%	1.7%	-1420%	-7.6%	-8.2%	7.6%
60-69세	851	905	-54	323	528	582	-9.1%	-5.7%	125.0%	-9.8%	-8.7%	-3.3%
70세 이상	496	534	-38	184	312	350	-0.4%	10.6%	-353.3%	-2.6%	1.0%	19.0%

주 순이동 = 전입자수 - 전출자수(- 는 순유출, 이외는 순유입)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부록 18] 세종지역 시도 간 전출입 현황

(단위: 명, %)

지역	2022		2023						전분기대비		전년동분기대비	
	연간	3/4	7월	8월	9월	1/4	2/4	3/4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10,128	1,450	-45	-316	-68	1,569	186	-429	-615	-330.6	-1,879	-129.6
서울	342	-23	-62	-59	-53	-151	-91	-174	-83	-91.2	-151	-656.5
부산	371	95	14	-1	19	65	32	32	-0	-0	-63	-66.3
대구	340	42	-9	17	8	59	34	16	-18	-52.9	-26	-61.9
인천	117	12	-29	-11	14	4	21	-26	-47	-223.8	-38	-316.7
광주	182	10	-13	12	22	42	41	21	-20	-48.8	11	10
대전	3,618	468	32	31	11	624	154	74	-80	-51.9	-394	-84.2
울산	119	35	12	8	9	19	28	29	1	3.6	-6	-17.1
경기	1,313	230	47	-59	-53	229	79	-65	-144	-182.3	-295	-128.3
강원	156	41	8	4	-4	44	9	8	-1	-11.1	-33	-80.5
충북	1,532	288	-77	-201	-72	338	-57	-350	-293	-514	-638	-221.5
충남	677	54	-26	-146	-27	-132	-115	-199	-84	-73	-253	-468.5
전북	376	76	-15	3	30	69	29	18	-11	-37.9	-58	-76.3
전남	182	45	24	14	15	31	-23	53	76	330.4	8	17.8
경북	330	41	3	35	14	123	-10	52	62	620	11	26.8
경남	394	37	39	24	3	166	54	66	12	22.2	29	78.4
제주	79	-1	7	13	-4	39	1	16	15	1500	17	1700

주 전출자\전입자의 경우 음수로 표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부록 19] 세종지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현황

(단위: 명, %p)

		2022					2023						전년동기대비	
		연간	1/4	2/4	3/4	4/4	7월	8월	9월	1/4	2/4	3/4	증감	증감률
[전체]		6,600	1,732	1,544	1,688	1,636	444	429	420	2,035	1,545	1,293	-395	-23.4
성별	남	2,389	623	531	639	596	180	152	151	745	589	483	-156	-24.4
	여	4,211	1,109	1,013	1,049	1,040	264	277	269	1,290	956	810	-239	-22.8
연령 별	19세 이하	89	58	8	11	12	2	4	2	48	10	8	-3	-27.3
	20 ~ 29세	1,282	317	327	327	311	105	67	81	363	307	253	-74	-22.6
	30 ~ 39세	1,379	350	335	350	344	88	91	91	413	334	270	-80	-22.9
	40 ~ 49세	1,849	458	418	463	510	109	123	117	576	414	349	-114	-24.6
	50 ~ 59세	1,262	331	291	342	298	92	98	86	397	330	276	-66	-19.3
	60세 이상	739	218	165	195	161	48	46	43	238	150	137	-58	-29.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S)

[부록 20] 세종지역 직종별 실업자훈련 실시현황

(단위: 명)

	[전체]	건설· 채굴직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보건· 의료직	식품가공· 생산직	음식 서비스직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 정비·생산직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022 연간	1,215	30	622	111	91	273	45	43
2022.01	50	0	7	0	7	10	0	26
2022.02	101	0	75	0	0	17	9	0
2022.03	96	9	62	0	0	19	6	0
2022.04	163	2	42	60	22	32	5	0
2022.05	69	0	49	0	0	17	3	0
2022.06	103	0	62	0	9	22	10	0
2022.07	45	0	8	0	7	30	0	0
2022.08	141	0	102	0	5	29	5	0
2022.09	125	11	63	0	10	32	2	7
2022.10	103	0	43	30	2	24	4	0
2022.11	95	0	35	12	16	30	1	1
2022.12	124	8	74	9	13	11	0	9
2023 연간	804	20	420	52	59	209	13	31
2023.01	61	0	29	0	6	25	1	0
2023.02	97	0	64	0	15	16	2	0
2023.03	113	0	63	0	1	42	0	7
2023.04	111	0	27	52	12	20	0	0
2023.05	142	16	84	0	8	31	3	0
2023.06	114	1	77	0	4	12	1	19
2023.07	33	0	15	0	0	18	0	0
2023.08	84	0	34	0	13	37	0	0
2023.09	49	3	27	0	0	8	6	5
2023.1/4	271	0	156	0	22	83	3	7
2023.2/4	367	17	188	52	24	63	4	19
2023.3/4	166	3	76	0	13	63	6	5

주 한국고용직업분류(KEKO) 2018에 따라 훈련직종을 분류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부록 21] 세종지역 성별·연령별 실업자훈련 실시현황

(단위: 명, %p)

		2022					2023						전년동기대비	
		연간	1/4	2/4	3/4	4/4	7월	8월	9월	1/4	2/4	3/4	증감	증감률
[전체]		1,215	247	335	311	322	33	84	49	271	367	166	-145	-46.6
성별	남	460	50	37	52	62	4	15	9	67	71	28	-24	-46.2
	여	1,014	197	298	259	260	29	69	40	204	296	138	-121	-46.7
연령별	19세 이하	11	3	5	0	3	0	0	0	14	2	0	0	-
	20~29세	147	33	46	23	45	4	10	2	32	44	16	-7	-30.4
	30~39세	185	25	55	41	64	5	11	9	28	54	25	-16	-39.0
	40~49세	357	72	108	87	90	6	16	8	45	101	30	-57	-65.5
	50~59세	294	62	79	88	65	8	22	15	61	89	45	-43	-48.9
	60세 이상	221	52	42	72	55	10	25	15	91	77	50	-22	-30.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부록 22] 세종지역 사업주 및 근로자훈련 실시현황

(단위: 명, %)

		2022					2023						전년동기대비	
		연간	1/4	2/4	3/4	4/4	7월	8월	9월	1/4	2/4	3/4	증감	증감률
사업주 훈련	[전체]	2,268	224	828	870	346	207	172	311	478	781	690	-180	-20.7
	사업주 지원금훈련	1,267	118	286	625	238	112	112	187	268	327	411	-214	-34.2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338	84	107	69	78	82	42	80	103	87	204	135	195.7
	지역산업맞춤형	663	22	435	176	30	13	18	44	107	367	75	-101	-57.4
근로자 훈련	[전체]	819	162	214	223	220	91	103	77	217	378	271	48	21.5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802	154	214	218	216	91	103	77	217	370	271	53	24.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7	8	0	5	4	0	0	0	0	7	0	-5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EIS)



참여연구진

인력양성팀

주연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관)
이창준(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박 인(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우승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임연구관)
남승목(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민병훈(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김제나(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일자리창출팀

도형준(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김영주(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임연구관)
김명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김선화(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 소 3002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51

연락처 Tel. (044)414-9263 / Fax. (044)863-3090



Sejong HRD Review의 원문파일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www.sjhrd.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9 773022 048008
ISSN 3022-0483

Sejong HRD Review

세종지역의 최근 HRD 이슈와 지역동향을 한눈에

vol.11

2023. 11월호



참여연구진

인력양성팀

주연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관)
이창준(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박 인(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우승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임연구관)
남승목(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민병훈(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김제나(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일자리창출팀

도형준(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관)
김영주(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임연구관)
김명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김선화(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관)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 소 3002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51

연락처 Tel. (044)414-9263 / Fax. (044)863-3090



Sejong HRD Review의 원문파일은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www.sjhrd.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9 773022 048008
ISSN 3022-0483